Weekly 공감

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NO.217
Korea.kr/gonggam
2013.07.15

기획특집 '지역문화공동체'가 여는 문화융성 시대

과학기술 R&D에 2017년까지 92조4천억원 투자

반갑다, 여름아! 가족과 함께 캠핑여행을 떠나요~

문화활동이 시장을 살렸어요

김승일
사회적기업 시장과사람들 대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9년 수원 못골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만들었던 문화공동체 '못골문화사랑' 활동인데, '못골문화사랑'은 수원의 못골종합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예수업, 인근지역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상인문화단체입니다.

'못골문화사랑'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문전성시)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 못골시장에는 상인 DJ가 방송하는 '못골온에어 라디오스타', 여성 상인들의 불평불만을 노래로 만들어 활동하는 '못골줌마불평합창단', 상인 뮤지션으로 구성된 '못골밴드' 등의 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또 못골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못골이야기신문' 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못골온에어 라디오스타 DJ, 못골밴드 보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골시장은 상인 중심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 문화시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겁을 냈습니다. '장사하면서 문화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까?' '문화공동체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은 '상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문화공동체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상인의 변화였습니다. 문화활동으로 하나가 된 상인들의 노력으로 못골시장은 매출액이 세 배나 늘었습니다.

상인들이 시장 전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상인 개개인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더불어 장사 스타일까지 달라지더군요. 못골시장 평균 유동인구는 문화활동을 하기 전 5천명에서 현재 1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견학 오는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에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장사가 잘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장에서 손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모든 잘못은 손님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고객한테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씩 상인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활동인 거죠.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서로 아프면 돌봐주고 자기 일처럼 다른 사람을 걱정해줍니다. 과연 제가 장사만 열심히 했다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장문화공동체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CONTENTS 2013.07.15 Korea.kr/gonggam | No.217 통권 318호

28

32

46

50

54

기획특집

‘문화융성의 풀뿌리’ 지역문화공동체

17

표지 이야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지역문화공동체 ‘성미산마을’의 마을축제 때 지역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1994년에 육아공동체로 시작돼 다양한 문화커뮤니티로 확장된 지역문화공동체의 효시다. 사진제공 · 성미산마을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07.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9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16호 '정부3.0과 함께 국민행복'을 읽고

댓글 트위터 사용자(jjb831*)**
기사를 보니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데이터는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ㄴ **답글**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제약 조건이 다릅니다. 데이터에 따라 상업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무 제약이 없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임영란 주무관)

댓글 페이스북 사용자(Sunny *)**
공공데이터 개방 소식은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것인가요?

ㄴ **답글** 공공데이터가 처음 제공되는 형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지만 직접 제공하는 건 주로 개발자·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기업에서 공공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하면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서비스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임영란 주무관)

위클리공감 '대한민국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은?'을 읽고

댓글 페이스북 사용자(Myung Su*)**
직장에 직원 수에 맞는 식당이 있듯이, 각 직장에도 일하는 여성 수에 맞는 유아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일의 능률은 물론 사회적인 보육문제도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ㄴ **답글**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육아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장에서도 마음 놓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박정식 사무관)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코리아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지난호를 만들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3.0' 시대에 기대감

정부3.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만 된다면…'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공개와 개방, 소통과 협력은 지금의 시대정신에 부합합니다. 방향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정부3.0이 국민행복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면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민이 정부 활동의 중심이 되려면 국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건을 만들려면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짜 '맞춤형' 정책을 기대합니다.

글 · 장원석 기자

알림

복권기금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새로운 공익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많은 국민의 참여 바랍니다.

응모주제 그동안 복권기금 등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복권법의 취지에 적합한 새로운 공익사업 아이디어 (기존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참조)
응모자격 제한 없음
응모기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응모방법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www.bokgwon.go.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수상작발표 8월 13일
시상 내역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10명) : 상금 10만원
※수상 대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사업과 ☎ 044-215-7851~7854

'문화융성' 대학생 광고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주제로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자격 대학생 · 대학원생(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 가능)
응모주제 '문화융성'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
▶정신문화(나눔, 배려, 예(禮) 등) 확산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화합 도모
▶문화를 통한 국적 · 인종 · 세대 · 지역의 벽을 허무는 문화의 다양성 공존
응모분야 TV 스토리보드, 인쇄광고, UCC 동영상(자세한 응모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응모기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mcst-ad.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상 내역
▶대상(1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편) : 후원사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부문별 각 2편) : 후원사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부문별 각 3편) : 후원사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문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6911-6570

낱말맞히기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17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2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풀 대신 어떤 것을 붙이는 데 쓰기 위하여 밥을 이긴 것. 밥알.
3 생활이나 행동, 목적 등을 같이하는 집단. "지역 ○○○의 자율적 문화활동이 문화융성 국가를 앞당깁니다."
5 화학 분석에서 물질의 성분을 검출하거나 정량하는 데 쓰는 약품.
6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9 육십갑자의 둘째. '갑자? ○○? 병인? 정묘? 무진? 기사…'
10 강원도 영월 동강이 빚어놓은 절경의 하나. '고기가 비단결같이 떠오르는 연못'이란 뜻의 생태계곡으로, 급류체험, 수상레포츠, 피서지로 인기가 높죠.

세로 풀이
2 사람이나 기계나 설비를 있는 대로 모두 움직여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는 것. '공장을 ○○○하다.'
3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4 몸길이.
5 연장자라는 뜻으로, 보통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 맞춤형 창업 지원을 활용해보세요."
7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촌락.
8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 담배 끊으세요.

〈위클리 공감〉 215호(7월 1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아줌마 **3** 위성 **4** 수하 **6** 여풍 **7** 당연시 **9** 정당
세로 **1** 아성 **2** 마수 **3** 위풍당당 **5** 하우스푸어 **8** 시진핑 **9** 정전

〈위클리 공감〉 215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강이슬(충북 청원군 옥산면) **박수진**(광주 북구 문흥1동)
안대수(경기 광명시 하안2동) **조중연**(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승용(경북 영주시 휴천2동)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제2 인터넷 붐’ 막는 걸림돌 치운다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성장산업 도울 ICT 규제개선 20여 개 과제 확정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8일 ICT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총 100여 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확정한 20여 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및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미래인터넷 사업에서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도 금지한다. KT그룹이 추진 중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위성+IPTV)의 방송법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허용과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장관 ‘임시허가제’도 신설했다.

인터넷 정책도 대폭 정비한다. 공인인증 외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개별 법령을 정한다. 국내 웹 환경 발전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액티브X 환경 전환도 시도한다.

반면,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

미래부의 이번 ICT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발표는 지난 정부조직 개편 당시 실효성없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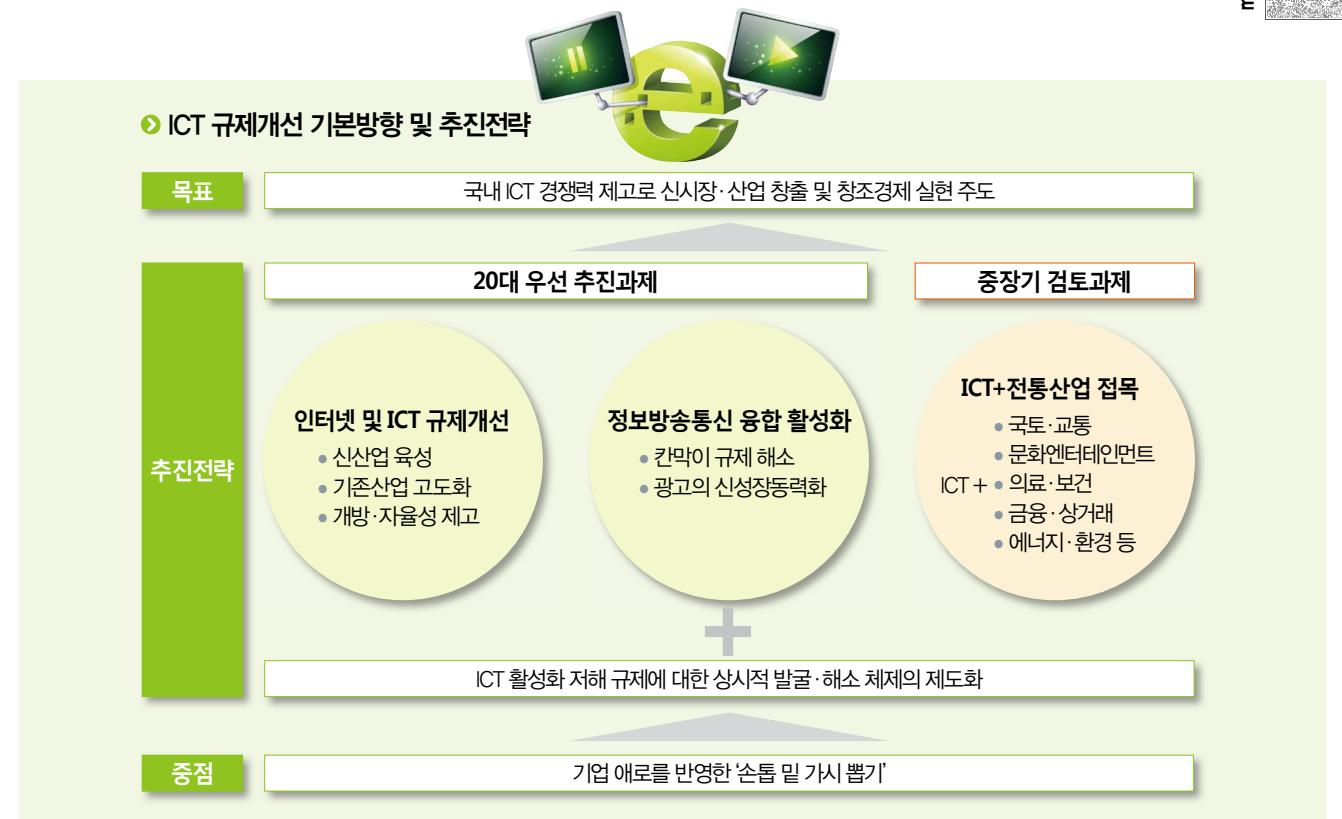
미래부는 이 같은 ICT 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 유형에 맞춘 효과적 추진 체계 정립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ICT전략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해 상시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인터넷 및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등에 장해가 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발굴해 해소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관계 부처와 기관의 개선 권고 답변 제출 기한을 3개월로 설정해 실효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현장방문과 함께 성과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범부처 협력사업’의 틀을 만든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협력사업인 u-Health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을 할 때 과제의 제안 단계부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법제도를 발굴·정비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로 했다. 향후 부처 간 사업화 장벽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ICT산업의 규제완화로 타 영역과의 결합이 활발해지면 신시장이 개척되고 양질의 고용 창출로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 세계적 제2의 인터넷 붐이 맞물릴 경우 실리콘밸리처럼 국내에서도 창의적 벤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박미숙 기자

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이 7월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제3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산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창조형 온라인 지식생태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대 우선 추진과제 요약과 관련법 제·개정 계획

분야	과제	관련법 제·개정 계획
ICT(인터넷) 신사업 장애규제 개선	빅데이터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3/4분기)
	클라우드 확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시 ‘클라우드법’ 국회 제출
	사물인터넷 본격화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미래인터넷 육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개정(연내)
국내 ICT산업의 개방성·자율성 제고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전자서명법 개정안 마련하고(연내),대체적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개별법령 개정 유도
	ActiveX 전환 유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종합대책 발표(3/4분기)
	임시조치제 보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연내)
	공간정보 서비스 역차별 해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 추진(2013년 7월 ~ 2014년 6월)
	망 중립성 내실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 마련·운영(연내)
	전자파 인증절차 간소화	전자파적합성(EMC) 평가 고시 개정(2013년 7월)
기존 ICT산업 고도화 병목규제 개선	정보보호산업 발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및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제출(3/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추진(연내)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완료) 및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 제정(국회 계류중)
	SW산업 육성	SW혁신 기본전략 발표(2013년 7월)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 신설(연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확립	방송법령 및 IPTV법령 개정(국회 계류중)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ICT) 진흥 특별법 제정(완료)
스마트 광고산업 활성화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	방송법 개정(국회 계류 중)
	인터넷·모바일광고 활성화	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및 테스트패널 확대 시행(즉시)
	신유형 광고의 근거 마련	광고 분류체계 개편(2014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개 소변, 아파트 계단에 방치하면 처벌

'생활 속 불편' 법령 121건 고치기로…본보기 화장품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자료·법제처

앞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의 소변을 치우지 않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동물의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변은 의자나 공원 벤치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를 더럽힌 경우에만 치우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법제처는 이런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21건의 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V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할 때만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이 위법한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도 추진된다. 또 공짜로 나눠주는 본보기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 되는 등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G

글·허진(중앙일보 기자)

"모든 규범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다"

빵·자유·사회적 기본권도 결국은 인권의 문제로 귀결

제헌 65주년을 맞는 올해 7월 17일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크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당선된 198명의 국회의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의원이었다. 제헌의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이들은 국회의 조직을 완료하자 바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한다. 작성된 헌법안은 7월 12일 의결되고, 7월 1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장·103조로 구성됐다. 국가 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 노동3권,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비록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지만 제헌헌법은 65년이 지난 지금 봐도 상당히 잘 설계됐다는 느낌이 든다. 이후 9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행 헌법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개정 이후 25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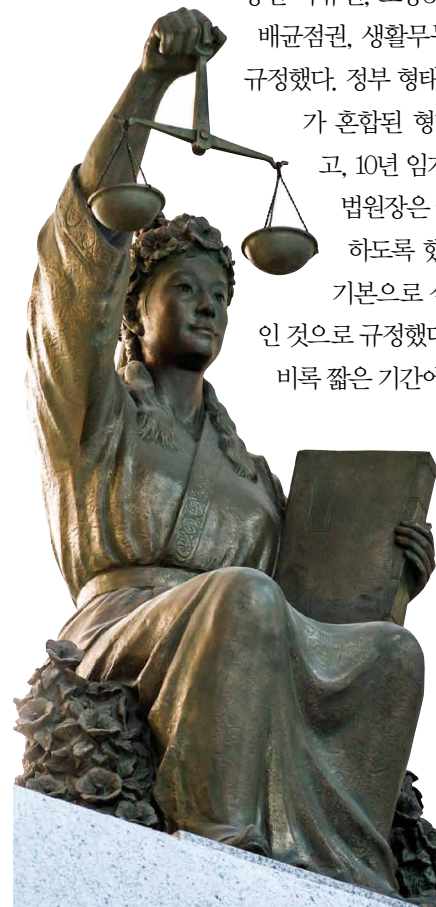
모든 규범은 시공(時空)을 초월할 수 없다. 사실 먹는 문제, 즉 '보릿고개'가 해결되지 못했던 제헌 당시의 현실은 아무래도 헌법 규범을 따라잡지 못했다. 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유의 문제가 거론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헌헌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명목적 헌법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4·19와 5·16을 거쳐 제3공화국(제5차 개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빵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자유'였다. 이 자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6·10 민주항쟁 이후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제9차 개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현행 헌법하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는 뜻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자유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복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곧 '삶의 질'의 문제다. 주택이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주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구체제에 대한 시민계급의 정치적 선언을 의미했다면,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 시민사회에서 약자의 생존과 자유에 대한 역사적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요구다. 여기서 '사회'에 담긴 권리의 내용은 물질적 급부를 의미한다는 데에서 '경제적'이라는 말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국가의 경제력이 곧 헌법의 규범력을 의미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빵의 문제도 인권이고, 자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기본권 역시 그렇다.

5년 후면 제헌 70주년을 맞는다. 칠순을 앞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이 흘러온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G

글·심경수(전 한국헌법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꼽이 큰’ 수산물 유통구조 확 바꾼다

유통단계 4단계로 축소… 위생문제 개선 제도 정비

복잡한 유통구조, 미흡한 위생·물류환경, 불안한 가격은 수산물 유통의 고질적 3대 과제다. 정부가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 환경 정비에 나섰다. 새로운 4단계형 유통경로를 만들어 비용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가 식탁에 오르는 동안 그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고등어 1킬로그램 기준 유통비용은 3,627원이다. 생산자가 2,704원에 판매한 고등어가 6,331원의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된다. 소비자 가격의 57.3퍼센트가 유통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수산물 유통비용률(유통비용/최종가격)은 55퍼센트 수준으로 농산물(42퍼센트)에 비해 높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산·양식산·원양산 수산물을 생산지 품목별로 각기 다르게 접근했다. 품목별로 적합한 유통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연근해산 수산물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든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중으로 경매가 이뤄지는 복잡한 6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오른쪽 표 참조). 새 유통경로는 기존 유통경로와 경쟁한다. 경쟁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산지에는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소비지에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확충한다. FPC는 생산자의 수산물을 한데 모아 처리와 가공을 거쳐 상품화한다. 만든 상품을 직거래하거나 소비자에 공급하는 것이 FPC의 핵심 기능이다.

FPC는 올해 3개소 창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확충된다. 소비지에 도입되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의 기능은 FPC에서 상품을 받아 소비지에 판매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수협공판장 1개소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로 전환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 성과를 평가해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량진 등 도매시장 양식 수산물 거래비중도 늘려

양식산은 새로운 거래환경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양식 수산물은 그동안 대부분 산지의 수집상을 통해 소비지 인근의 유사 도매시장에서 거래돼왔다. 그 결과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생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많았다. 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매시장의 양식 수산물 취급 비중을 늘린다. 이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 작업과도 연계돼 있다. 아울러 활어전문물류센터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의 개발도 추진한다.

원양산은 대부분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돼 다양한 가격결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태 등 원양수산물의 도매시장 상장이 늘도록 유도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늘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유통구조를 줄이는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위생·물류 시스템을 정비한다. 수산물 유통의 시작인 위판장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산지 위판장을 위생 수준별로 등급화해 관리한다. 산지 위판장과 FPC·도매시장·물류센터 등 전체 유통과정은 저온유통체계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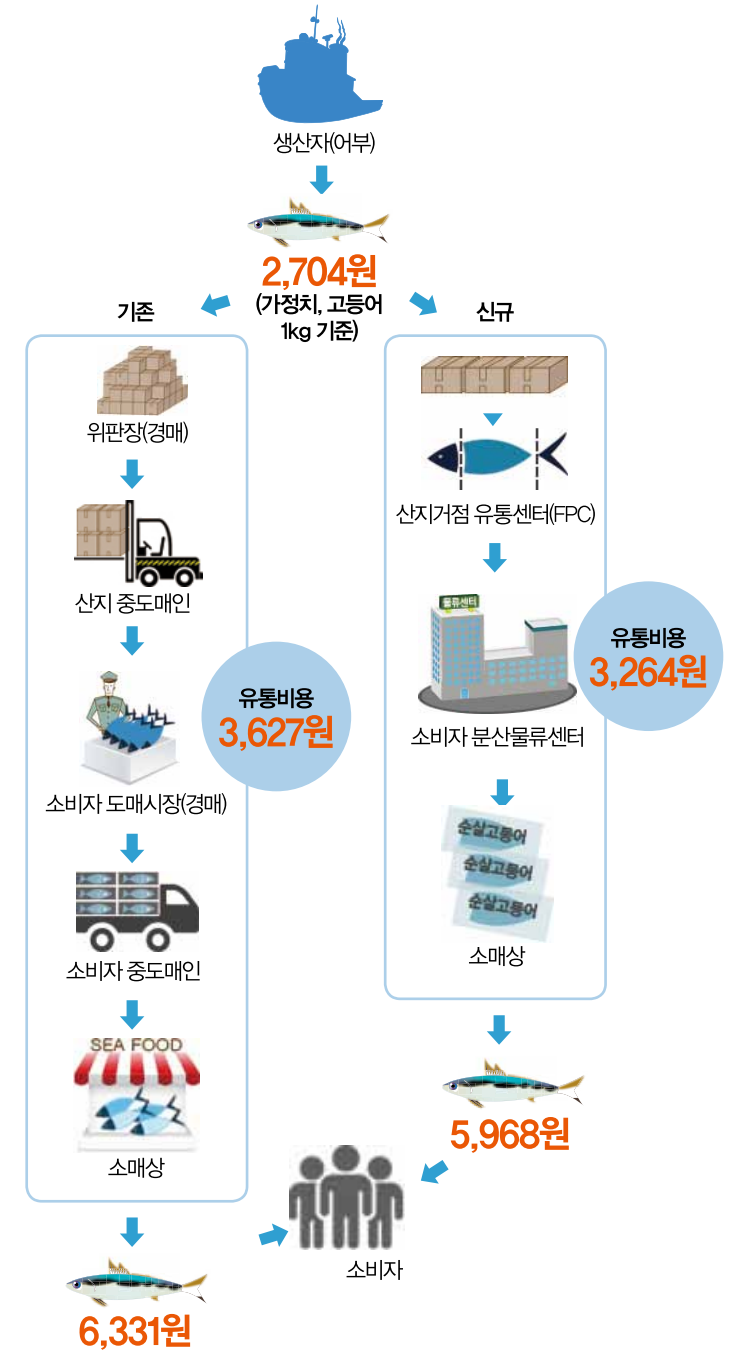
수산물의 위생과 품질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위반 사례가 많았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9개로 확대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그동안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업체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를 17퍼센트(4,427개→5,200개) 늘리고 이력제 등록품목도 매년 1개씩 추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생산 관측을 확대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나선다. 그동안 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을 2017년까지 2배로 점차 늘린다. 비축품은 물가 불안시기에 전통시장 등에 직접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돕는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물가 시책을 위해 ‘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세우고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해 수산물 가격을 관리한다. 수산물 관측정보 등 소비 관련정보도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합리적인 수산물 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숙원과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나아가 유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산물 가격변동률도 7.5퍼센트 내외로 안정화되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G

글·남형도 기자

유통비용 거품 확 빼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

유통비용 10% 절감
생산자단체 중심의 **4단계형 새로운 유통경제창설**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제품의 **유통비용을 10% 줄여 소비자·생산자 편익 제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양질의 수산물 공급**

수산물 가격 안정화
정부비축 물량 확대 및 수산업 관측 강화 등으로 **수산물 가격변동률의 안정화(7.5%)로 소비자물가 안정 기여**

연근해산 수산물 유통경로

생산자(어부)
2,704원 (가정치, 고등어 1kg 기준)

기존: 위판장(경매)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경매) → 소비자 중도매인 → 소매상 → 6,331원 (유통비용 3,627원)

신규: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 소비자 분산물류센터 → 소매상 → 5,968원 (유통비용 3,264원)

소비자

과학기술에 5년간 92조4천억원 투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과학 분야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 가운데)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7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관계 부처의 계획을 종합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3차 계획의 비전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한 5대 전략(High Five)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등이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R&D 예산으로 전 정부보다 24조4천억원 많은 9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동시에 기존에 확정된 투자를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예산을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창출, 건강 장수시대 구현 등 5개 분야에서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30개 중점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맞춤형 신약 기술과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글로벌 기초연구 허브'로 육성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글로벌 기초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초·중등 과정에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을 연계해 융합적 사고를 돕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원)에서는 학제 간 융합 교과 과정이 늘어난다. 또 출연 연구기관 내 협동·융합연구 예산을 늘리고, 내부에 기술이전·사업화 조직(TLO)을 둬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2011년 12.4퍼센트에서 2017년 18퍼센트로 늘어난다. 연구개발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발 역량을 정부가 나서 키우겠다는 뜻이다. 우수한 지식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되는 단계까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기반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문화 분야 전문직업군도 양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R&D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 혁신의 모든 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만간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35.4퍼센트(1981~2010년)에서 40퍼센트(2013~2017년)로 개선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순위를 9위에서 7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64만개가량 생길 전망이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한 5대 전략(High Five)

High1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High2 국가 전략기술 개발
① IT융합 신산업 창출
② 미래성장 동력 확충
③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④ 건강 장수시대 구현
⑤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High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①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② 융합인재 양성·활용
③ 출연(연) 육성
④ 과학기술 글로벌화
⑤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⑥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High4 신산업 창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②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③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④ 신시장 개척 지원

High5 일자리 창출
① 창업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②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③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농식품부 R&D 예산, 전체의 10%로 확대

부처별 계획도 일부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비중을 2022년까지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2012년 5퍼센트)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6퍼센트 수준인 건강 관련 R&D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약 20퍼센트)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퍼센트까지 높여 국민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글·장원석 기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위원장, 총리급 격상… 민간위원 10명으로 늘려

이번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다.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성장동력,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국가 R&D 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설치된 국과심은 역할 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과 심의 기능을 겸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행정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위상도 높아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민간 출신으로 장관급이었지만, 국과심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격상됐다. 종전 7명이던 민간위원의 숫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 간사위원을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13개 부처 장관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정책 이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와 함께 국과심을 이끌 민간 공동위원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구분	구성
위원장(2명)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미정)
정부위원(13명)	관계부처 장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10명)	김진형(KAIST 전산학과 교수)·안동만(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김영준(광주과학기술원 총장)·안순신(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유욱준(KAIST 의과학대학원 원장)·구자열(LS그룹 회장)·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송규영(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신용현(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글로벌 리더 과학자 3천명 키운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발표…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연구력 집중

정부가 연구개발(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35.2퍼센트(2012년)에서 40퍼센트(2017년)로 확대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구축해 세계 'TOP 1퍼센트 과학자' 300여 명을 유치하고, 3천명의 글로벌 연구리더를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구의 양적 성과가 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5위권인 세계적 기초연구 성과(과학인용색인(SCI) 피인용 상위 1퍼센트 논문 수·2012년 기준)를 2017년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고, 49명(2011년)인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자(SCI 피인용 상위 0.1퍼센트 논문·주저자 기준)도 2017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세계적 연구 성과 계획

투자목표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2012년 35.2% → 2017년 40%

성과목표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세계 10위권 달성
  2011년 1,268편(세계 15위) → 2017년 5천 편(세계 10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육성
  2011년 49명 → 2017년 100명 이상(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우선 미래부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8.8퍼센트 수준인 중견 연구자의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을 2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구성과 창출의 허리 역할을 할 중견·리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를 연구에 반영하는 개방형 기획 등 R&D 기획 방식을 다양화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미래도전형 신진연구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평가자와 산업계 등으로 평가자 집단을 확대하고, 사전에 설정한 질적 목표 달성 여부와 연구 성과의 가치를 단계별로 평가할 방침이다. 해외 평가자는 분야별 세계 상위 10퍼센트 저널 또는 세계적 수준 콘퍼런스의 논문 심사자, 기초과학연구원이 초빙한 연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연구력을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재생의료·신약개발·줄기세포 등 생명공학(BT) 분야, 나노소재·나노에너지 등 나노공학(NT) 분야, 기후변화 감시·예측, 신재생에너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빅데이터 핵심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적 난제, 고령화, 장애, 재해 등 공공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영재학교·과학고·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올해 200여 개 수준인 영재학교 및 과학고 연구교육(R&E) 지원을 2017년 400여 개로 확대한다. 또 연구중심 대학의 기반을 강화해 대학과 출연기관 간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 과학 영재와 융합형 과학 인재를 키워 기초연구의 생태계부터 제대로 구축하자는 취지다.

전략 분야에서는 국제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낸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의 가상연구소 프로그램, 한·스웨덴 국제 프로젝트 등 해외 R&D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부처가 미래부와 교육부로 나뉘었지만 교육부가 지원한 우수연구자를 미래부에서 후속 지원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G

글·장원석 기자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전

2013.7.1~9.10

총상금 1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모대상
문구, 사무용품, 패션소품, 생활소품, 공예품, 복제품 등

공모주제
- 각 국립박물관 유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
- 독도, 아리랑, 한글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
- 기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접수기간
2013.7.1.(월) ~ 9.10.(화) 온라인 접수

심사방법
- 예선 : 온라인 심사 (www.cfnmk.or.kr 접수)
- 본선 :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하여 경쟁 PT 심사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1인(팀)
금상	상금 200만원	1인(팀)
은상	상금 100만원	1인(팀)
동상	상금 50만원	4인(팀)
입선	자체상품(10만원 상당)	본선진출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문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모전담당자 : 02 2077 9714 / 9738

‘문화융성의 풀뿌리’ 지역문화공동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 단위의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뢰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화융성’의 정책 취지를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지역문화공동체를 찾아볼까요.

문화가 숨쉬는 삶 공동체가 살아난다

전통적이면서도 다소 촌스러움을 상징했던 '마을'이 부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각 지역의 마을 커뮤니티들은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돼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도 시민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문화활동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의 지역문화공동체인 '성미산마을'의 아이들이 지난 6월 초 열린 마을 축제에서 도자기 물레성형을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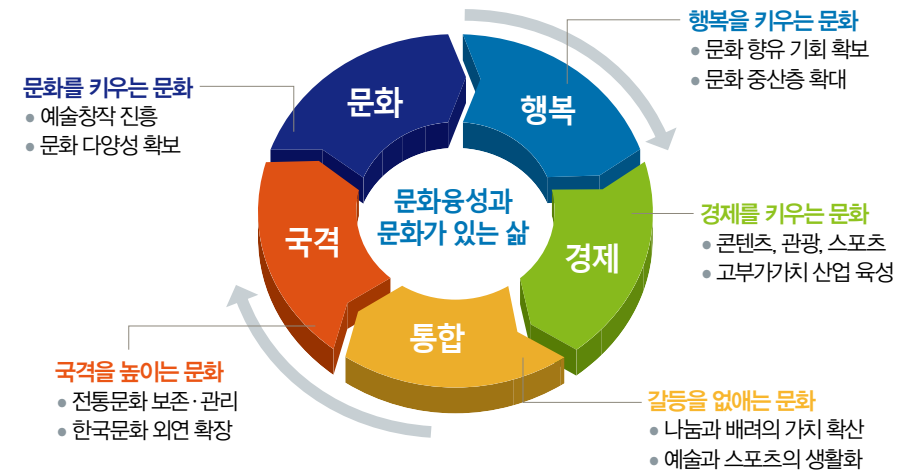
지난해 4월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결과를 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인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서는 외형적 고속성장을 이룬 한국인에게 문화적 치유(힐링)가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로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새 정부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융성'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역문화공동체의 문화활동이다.

최근 몇 년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역문화공동체의 좋은 본보기인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마을'이나 강원도 평창의 '감자꽃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성미산마을'은 1994년 육아공동체로 시작해 19년째 지역커뮤니티를 확장해오고 있으며 '감자꽃스튜디오'는 폐교를 활용해 지역문화를 거점화했다.

지역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공동체이다 보니 한계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 동아리 등 문화공동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수도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및 인력쏠림 현상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공동체 통해 문화의 생산과 소비 선순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도서관과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각 지역의 문화재와 놀이, 음식문화를 비롯한 지역문화가 더욱 특색 있는 문화·관광상품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지역문화재단을 거점으로 지역문화 인력 및 프로그램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여가사'와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지역문화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문화행정가, 기획 및 활동가, (준)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도 지원한다.

이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 규모도 2013년 206억원에서 2017년 9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지역민족문화과 최종철 사무관은 "정부의 지역공동체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며 "지역문화공동체가 문화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융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가 7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

글 · 박미숙 기자

경제적 자립을 추진 중인 지역문화공동체

- 강원도 평창 '도사리마을' ➔ 평창문화원 지원으로 '시골밥상' 특화 사업 추진 중
- 전라남도 진도의 '해창마을' ➔ 진도문화원 지원으로 '민속문화예술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됨
- 대전 대덕구 '장동마을' ➔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

육아공동체가 문화마을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예술가

영화 제작부터 연극·밴드 공연, 합창단 활동, 인문학 모임까지 지역문화활동의 모델 제시

1994년 '육아공동체'로 시작한 '성미산마을'이 올해 19년째 지역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독서클럽, 연극·사진 동아리, 성미산어린이합창단 등 다양한 문화 소그룹들이 지역민들 주도로 운영 중이다. 지역공동체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성미산마을을 찾았다.

'성미산로 6길'이라고 쓰인 팻말이 달린 골목 초입에 가면 '작은나무'라는 아담한 카페가 있다. 성미산공동체 주민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내서 만든 카페다.

늦은 오후 이 작은 카페에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삼삼오오 가방을 둘러메고 들어와 과일 주스를 주문했다. 카페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앉아 있던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다. '작은나무' 옆 큰길 가에는 '두레생협'과 '동네부엌'이라는 반찬가게가 나란히 있다. 두레생협에는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온 동네 주부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성미산로 6길' 팻말을 따라 들어선 골목길에는 '마을극장'과 '소행주(소통과 행복이 있는 주거공간)'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걸려 있는 공동주택도 보인다. 작은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은 정겨움이 느껴졌다. '성미산마을' 공동체가 있는 동네 풍경이다.

'성미산마을'은 행정구역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을 행정구역으로 성미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육아·문화 커뮤니티를 통칭해 '성미산마을'이라고 부른다.

1994년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한 성미산마을 공동체는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어린이집의 전세금을 마련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했다. 지금이야 지역별로 공동육아가 보편화됐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성년이 됐고 성미산마을 공동체 역시 성장했다. '육아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를 갖추며 외형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전문 연극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단원으로 활동하는 성미산극단 '무말랭이'는 일 년에 한 번 있는 지역축제 때 성미산 마을극장 무대에 연극을 올린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문화활동 동아리는 '무말랭이' 극단 말고도 다양하다. '진동'이라는 주민 노래패와 성미산풍물패, 성미산 어린이합창단, 울림두레생협 합창단 등이 있다. 주민 밴드로는 '아마(아빠·엄마의 준말)밴드'와 '7013B'가 있다. '7013B'는 성미산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번호다.

사진 동아리인 '동네사진관'의 멤버들은 지역축제 때 사진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밖에 직장에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이 만든 독서모임 '이런저런'도 있다.

최근에는 성미산마을 주민들이 감독·주연을 맡은 독립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지역의 주민인 강석필씨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이 영화는 2010년 마을 주민들이 개발 위기에 몰린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담았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를 두고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성미산마을 공동체가 입소문을 타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수시로 마을 견학을 오고 있다.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견학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관련 일을 진행하는 단체인 '사람과 마을'을 만들었다.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 견학을 진행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사람과 마을'에 마을 전반에 대한 소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G

글·박미숙 기자 / 사진과 지도·성미산마을

'사람과 마을' 인터넷사이트 : cafe.daum.net/sungmisanpeople

성미산학교
마을학교이자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교육을 추구하는 대안학교. 아이들은 이 학교에 다니며 나무를 가꾸고 마을의 노인들도 돌보며 공동체 교육을 접한다.

마을극장
2009년 2월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됐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음악·전시·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행위가 시도되는 공간이다.

작은나무
성미산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 가끔 독서토론회나 발표회 등 작은 이벤트도 열린다.

두레생협
생산지의 음식들을 직거래해 공급해주는 장터. 생활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이곳에서 매일 싸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마을신문·라디오 만들며 '하하' 문화활동 이어지며 '호호'

학부모 지원으로 시작된 청소년 문화활동,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한몫

느리지만 꾸준하게 '달팽이처럼' 주민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방송이 있다. 경기 광주시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가 만드는 '달팽이신문'과 '달팽이라디오'는 말썽꾸러기 중학생부터 마을 이장님까지 지역 주민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아이들의 문화활동 저변을 넓혀보자고 뭉친 학부모들의 활동이 지역문화공동체 운동으로 확대된 사례다.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에서 제작하는 달팽이라디오 방송에는 이 지역 중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바람 좋고 사람 좋은,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달팽이라디오."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열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일주일에 한 번 라디오방송국으로 변신한다. 마을 주민인 정준오씨가 독학으로 터득해 PD, 작가, DJ의 1인 3역을 맡아 해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한 CM송이 끝나자 정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제 열 번 남짓 제작한 라디오 방송인 만큼 아직 긴장과 어색함을 감출 수 없지만 동네의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에는 정겨움이 가득하다.

경기 광주시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달팽이신문' '달팽이라디오'를 제작해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미디어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새로 생긴 가게를 소개하거나 지역의 유명인을 만나 인터뷰하기도 하고, 마을 행사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마을 소식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뜨겁다.

달팽이라디오는 지역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장님이 나와 인터뷰를 하거나 동네에 사는 인터넷 육아카페 운영자가 출연해 엄마들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정씨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상우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도 이 신문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접하고 공동체에 더 빨리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말썽꾸러기 중학생들도 마을에서는 기자다. 마을 곳곳의 뉴스를 수집하고 교육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다. 천방지축이던 아이들이 신문사의 문턱을 넘더니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성 밝아졌다는 칭찬까지 듣고 있다.

한 달 한 번은 엄마가 만들고 딸이 파는 '달팽이장터'도

최근에는 마을 장터를 열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 열리는 '달팽이장터'다.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서로 사고파는 것이다. 직접 만든 팔찌를 딸과 함께 파는 엄마, 폐식용유로 만든 빨랫비누를 파는 중학교 생태동아리팀 등 물건도 참여자도 각양각색이다. 주최 측이 남긴 수익금은 다음번 마을 사업에 쓰인다.

인구가 2만명이 채 안되는 퇴촌면의 문화공동체는 학부모 모임에서부터 출발했다. 서울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에 인구 절반 이상이 타지에서 온 탓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 모임은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힘을 합쳐 청소년 문화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처음 열린 '청소년 어울마당'이 그 출발.

아이들이 음악 밴드와 노래 공연 등을 직접 기획하고 연습하면서 교우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본 학부모들은 행사 후 큰 성취감을 맛보았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년층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보람을 느낀 학부모들은 더욱 힘을 보탰다. 청소년 위주로 시작된 문화활동을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들이 신청한 활동들을 위주로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마을학교를 통해 인문학 강연과 예술교실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음악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나이스&롱'이라는 이름의 동네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준비한 청소년 축제에 엄마, 아빠가 밴드를 꾸려 무대에 오르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의 토마토축제에서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지역자치센터를 기꺼이 빌려주는 등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최근 3~4년 사이에 없어진 것이 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퇴촌면 원당리에 위치한 너른고을 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동네 사랑방이다. 학교를 마치고 내려온 초등학생들이 소파에서 뒹굴며 책을 읽고 우연히 들른 아빠와 만나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광동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주민이 가게를 비우며 빌려준 공간은 생활문화네트워크 사무국이 됐다. 이곳은 신문사이자 방송국, 밴드 연습실이기도 하다.

당분간 사무국은 영화 이야기로 꽃을 피울 예정이다. 올해 말 열리는 청소년 축제가 영화제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남종면과 퇴촌면에 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중 7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을 가르치는 '영상캠프'가 열린다.

진행을 맡은 최태은 간사는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데 직접 영화를 만들며 이 지역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최 간사는 "부모와 자식, 일대일 관계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을 품다 보니 내 아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래집단까지 함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G

글·박미소 기자

퇴촌남종생활문화네트워크 cafe.naver.com/namjongtoechon

빈집 많은 우범지대 담벼락에 예술가들, 문화를, 소통을 그리다

빈집들이 공예방·영화제작소·작은도서관으로 변신하자 사람들 발길도 늘어

600가구 중 500가구가 빈집이었다. 10년 이상 미뤄진 재건축에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빈집엔 쓰레기가 넘쳤다. 청소년들은 불장난을 하기도 했다. 가끔 도둑도 들었다. 인천 남구 숭의동 우각로 마을의 옛이야기다. 보다 못한 지역의 예술인들이 나섰다. 마을은 바뀌기 시작했다. 빈집에는 벽화가 생기고 공예품 만드는 소리가 울렸다. 우범지대였던 이곳은 이제 '문화마을'로 불린다.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도예공방을 하고 있는 유은정씨는 연극인인 남편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켰다.

색색으로 칠한 마을은 장맛비에 더욱 선명히 빛났다. 골목을 돌 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집들이 반겼다. 곱게 칠한 벽면에는 개성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공작소 창고에는 풍차와 해바라기가, 극단 건물에는 장미를 든 처녀가 담장을 채우고 있었다. 집주인을 그려놓은 벽화도 있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과 장난감 블록도 벽면을 수놓았다. 인천 남구 숭의동 우각로 문화마을은 흡사 한 편의 그림 같았다. 그저 걷기만 해도 다음에 펼쳐질 풍경을 기대케 하는 매력이 있었다.

우각로 문화마을 공작소 창고에 풍차 벽화가 그려져 있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인천 남구 숭의동 109번지 일대에 조성돼 있다. 2011년 겨울 이 지역에 예술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문화마을'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작가·화가·도예가·영화감독 등 예술인들의 영역도 다양했다. 몇몇은 거주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작업 장소로 쓰기도 했다. 그렇게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 지금은 18명의 예술인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그들만의 감각으로 1년 반 동안 조금씩 마을을 바꿔나갔다. 밋밋하던 건물을 색색으로 페인트칠하고 벽화를 그렸다.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림·도예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타자 우각로는 문화마을로 거듭났다. 주중·주말에 찾은 방문객들의 셔터 소리와 감탄사가 이어진다.

마을로 향하는 길이 소뿔 모양처럼 굽었다 해서 지은 이름이 '우각로'다. 그 이름처럼 마을에 얽힌 사연도 굽이굽이 고생길. 15년 가까이 재건축이 지연되자 우각로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떠났다.

빈집이 늘어갔고 어느새 마을은 우범지대가 돼 있었다. 빈집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로 쓰레기통이 되어갔다. 집집마다 쌀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 동네에 남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재건축은 요원하고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었다.

2011년 겨울 무렵 보다 못한 인천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와 지역의 예술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남구의제21은 인천 지역의 행정과 기업, 시민이 협력해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다. 우각로 문화마을 사무국장인 오은숙씨는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논의하다 빈집에 들어가 살아보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빈집이지만 저마다 주인이 있어 협의가 필요했다. 50통 이상 주민들과 통화한 끝에 빈집 15채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예술인들도 월세를 줄일 수 있어 서로 이익이었다.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에서 처음 마을 살리기 나서

쓰레기 악취로 가득했던 빈집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막힌 벽을 허물어 두 집을 잇기도 하고 문을 부숴 다시 달기도 했다. 페인트칠을 한 벽면에 재주 많은 예술인들은 그림을 그렸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 지역 청소년·대학생들이 한 번씩 봉사활동을 오기도 했다. 오씨는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없어 한겨울에 도원역까지 왔다갔다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빈집이 공예방으로, 영화제작소로, 작은 도서관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다. 대낮에도 다녀야 했던 경찰의 순찰도 사라졌다. 문화마을로 알려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다. 다른 지역의 관공서에서 좋은 사례로 꼽으며 탐방을 하기도 했다.

마을을 바꾼 예술인들과 동네 주민도 스스로 이룬 변화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33년 동안 우각로에 거주한 김선자씨는 "낙후된 우범지대에서 사람들이 찾는 동네로 바뀌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도예 공방에서 도예품을 만들며 주민들을 가르치는 유은정씨는 "연극인인 남편을 따라왔는데 열악했던 환경을 제 손으로 바꿔가는 일이 재미있다"고 우각로에 사는 소감을 밝혔다. 서양화를 전공하고 목공예품을 만드는 이성민씨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의 수입에 도움이 될 수익 사업도 구상 중이다. 마을 운영 사무실의 1층 공간은 카페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도예방에서 만든 도예품들을 지역 방문객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우각로를 상징하는 소뿔 모양의 화분·컵 등을 제작하는데 반응이 좋다.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돼 지금의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G

글·남형도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내 아이를 위한 마음들이 모여 동네 어르신까지 "우린 한가족"

지역문화공동체 회원, 소외 노인과 '일촌 맺기' 운동… '고독사' 없는 동네 만들어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는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라는 지역문화공동체가 있다. 삼선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만난 학부모들이 2008년에 만든 공동체다. 이 모임은 초창기엔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학부모 공동체였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봉사 활동을 펼치는 지역문화공동체로 발전했다.

7월 10일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미술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삼선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라고 쓰인 간판이 달린 곳이다.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DJ박스, 지점토 작품, 바이올린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잠시 멈춰 서서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는 삼선동의 '명소'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일직선을 그려보세요."

"선생님, 연필을 이렇게 잡고 하면 돼요?"

"선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가로, 세로로 계속 그리면 돼요. 처음엔 지겨워도 이게 스케치의 기본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난 우리 딸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정말 소질이 있어요?"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자세가 좋아요. 스케치를 잘 하면 수채화도 잘 그릴 수 있어요."

7월 10일, 이곳을 찾았을 때는 미술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미술강사 홍석호(45)씨가 강습생들에게 데생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이었다. 한상미(37·주부)씨는 "학교를 졸업하고는 미술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늦게나마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이곳은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의 회원들이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이다. 이 공동체가 시작된 데는 '놀토(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가 큰 역할을 했다. 2005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선 '놀토'가 시작됐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였지만 주말에 일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김준용(48)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는 주말에도 가게를 봐야 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엄마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미술, 연극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동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굳이 애들을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맞벌이하는 엄마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차츰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지난해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등록을 했고요. 현재는 11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아이들을 위한 기타, 미술, 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이런 강의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자 프로그램'이다. 김 대표는 "아이들에게 음악, 미술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수십만원이 넘게 드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서 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르칠 수 있다"며 "이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학원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에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빠 밴드·라디오 방송 등 문화활동도 활발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소중한 배움터다. 어머니들은 편집기술을 배워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아빠 밴드'를 결성한 아버지들은 퇴근 후 연습실로 가 색소폰·드럼 등을 연습한다. 김수현(45·주부)씨는 "처음엔 방송 원고를 작성하는 게 낯설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됐다"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돼 지역주민들 간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이 모임의 중요한 활동이다. 지난봄부터는 이 모임 회원 20명과 지역 내 소외된 노인 20명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일촌 맺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지만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선 '고독사'로 죽는 노인이 한 명도 없도록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일촌'들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정을 쌓아간다. 그는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와 일촌을 맺고 있는데 피붙이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신다"고 말했다.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는 앞으로 아이, 학부모, 노인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조금씩 마을을 바꾸는 일로 확대된 게 신기하면서도 기쁘다"며 "삼선동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라고 말했다. Ⓖ 글·김혜민 기자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cafe.daum.net/sbvcschool

꽃집 아저씨, 와인가게 아줌마…
이웃 어른 모두가 아이들 선생님

주민들이 직접 사서로 활동… 마을 공동체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대전 유성구 전민동 모퉁이도서관.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주민이 직접 사서로 활동하는 마을 도서관이다. 올해로 설립 15년을 맞았는데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책과 교류하는 배움의 장으로 주민들에게는 취미와 문화를 공유하는 또 다른 쉼터로 자리 잡았다.

전민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모퉁이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 이용 교육 수업에 참여해 도서 분류법을 배우고 있다.

오상민 기자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의 이름을 말해볼까요?"

"플라톤이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초등학교 4학년의 답변 수준치곤 놀랍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평생학습센터 1층 모퉁이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 이용교육 수업 현장이다.

"이런 철학자들이 쓴 책은 몇 번으로 분류하죠?"

"일공공(100)!"

이날 수업은 전민초등학교 4학년 4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십진분류법에 따라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하는지 배우고 책의 성격에 맞게 직접 책을 분류해 보는 활동이다. 어린이들이 책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을 도서관 활동가들이 직접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년째 계속해온 수업이라 프로그램 내용이 체계적이고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수업에 참여한 김채윤(11)양은 "크기나 모양으로 나누는 줄 알았는데, 책을 꽂아두는 것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제는 친구들과 와서 보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월 12일 모퉁이도서관에서 열린 '풍선아트' 수업 모습. 지역주민 이형덕씨가 일일교사로 나섰다.

모퉁이도서관

모퉁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도서관이다.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1998년 개관했다. 2000년 전민동 작은 지하 건물로 이전해 10년을 보낸 뒤 2010년 지금의 평생학습센터로 옮겼다. 덕분에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도서관 내부는 위층 다락방과 아래층 비밀방으로 분리된 복층 구조다. 보고 싶은 책을 찾아 마음에 드는 구석자리에 가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에서 온전히 책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혜성(11)군은 "방학 때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낸다"며 "책도 있고, 친구도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사실 공공도서관은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통 자치구별로 하나씩이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서적 대여와 반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책은 있는데 읽는 사람이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작은도서관이 '책 읽은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마을 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4천여 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모퉁이도서관은 이런 작은도서관의 대표격이다. 2002년 공동체 도서관으로 전환한 모퉁이도서관은 주민이 직접 운영한다. 운영비는 주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활동가들이 직접 사서를 맡아 인건비를 절감한다. 보유한 도서는 2만3천여 권에 달한다. 규모로만 보면 '작은도서관이 아니다.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이 매년 많은 양의 도서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보희(49) 관장은 "50여 명의 활동가가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책 향기를 전해주는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취미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퉁이도서관이 마련한 사업 중에서도 '마을특강'이 가장 눈에 띈다. 지역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관장은 "주변의 생활 속 전문가가 직접 선생님이 돼 주민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라며 "꽃집 아저씨, 미술학원 선생님, 와인가게 아줌마 등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마을 특강은 지역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업을 들으려는 주민이 크게 늘었다.

매년 10월에는 인근 근린공원에서 '모퉁이 마을 책잔치'를 연다. 집에 있던 책을 사고파는 장터인 동시에 각 나라의 의상과 음식, 놀이 등을 소개하는 뜻 깊은 행사다. 연구기관이 몰려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행사다. 김 관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에는 공부와 성적에 지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장원석 기자

전국 4천여 개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문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행복한도서관재단과 함께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이하 작도포털)를 개설했다.

작도포털(www.smalllibrary.org)에는 전국 4천여 개 작은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검색 기능이 있어 도서관의 주소와 운영 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자를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도 제공한다. 운영 경험이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운영정보 공유'를 참고하면 좋다. 각종 공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산골마을 문화활동으로 "이웃사촌 됐어요"

울산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주민들 의견 모아 요가 등 문화 프로그램 진행

주민 400명의 작은 산골 소호마을. 요즘 이 마을엔 생기가 넘친다. 곳곳에서 밴드의 연주 소리가 들리고, 비닐하우스에선 동네 아줌마들의 요가 배우기가 한창이다. 한때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던 이 마을에 일어난 작지만 큰 변화를 따라가봤다.

소호마을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중 색소폰교실에 참가한 40~50대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은 해발 550미터 고헌산 중턱에 있다. 마을 주민은 약 400명. 주 소득원은 감자와 고랭지배추 농사다. 울산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넘게 산길을 따라 내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 도심과 이 마을을 잇는 대중교통은 하루 4번 다니는 버스가 고작이다. 말 그대로 외딴섬과 같은 산골마을이다.

평범했던 소호마을은 1960년대부터 30년간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마을 사람들은 울산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귀농·귀촌 바람이 불면서 외지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5년 98가구(304명)이던 마을은 올해 191가구(438명)로 규모가 커졌다. 그 사이 마을의 유일한 학교인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는 폐교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고, 썰렁했던 마을회관 앞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운영되는 요가교실. 문화생활을 함께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됐다.

하지만 이주민과 원주민이 섞이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잦았고, 이주민들이 추진하던 마을법인 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긴 원주민들이 울산시와 울주군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소호마을에서 갈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짓고, 마을잔치를 연다. 공동으로 설립한 마을법인 '소호리고헌산'을 통해 감자와 야생차, 절임배추를 판매한다. 도시 학생의 시골 유학을 돕는 '소호산촌유학센터'와 야영장, 힐링 개념을 도입한 '치유의 숲'도 운영해 마을 소득을 올린다. 수익금은 마을 주민의 품앗이 비용과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 건 마을 밴드와 시문학교실, 요가강좌와 같은 문화 행사를 만들면서다. 이날 정오쯤 초록잎이 무성한 감자밭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요가 수업이 한창이었다. 주민들이 5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비닐하우스는 마을법인 사무실 겸 요가교실로 쓰인다.

"왼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다리는 왼쪽 허벅지에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체육복과 일바지 차림의 30~60대 여성 7명이 요가 강사 주명애씨의 말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요가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요가강좌를 수강하는 주민들은 요가 때문에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서먹함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숙(69)씨는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이제는 처음부터 이웃사촌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며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40~50대 남성 주민 상대로 색소폰 교실도 열어

지난해 6월 시작된 요가강좌는 울산의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이 소호마을 주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울림은 요가강좌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밴드교실, 4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색소폰교실, 시문학교실, 노래교실, 직장인밴드를 운영한다. 기타·드럼·건반·노래는 울림 멤버가 강사로 나서 가르치고, 색소폰과 요가는 외부 강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울림은 매년 5천만원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들은 무료로 수업을 듣는다. 박제광(47) 울림 대표는 "문화는 이제 소호마을의 일부가 됐다"며 "강좌가 없는 날에도 주민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호마을과 울림이 인연을 맺은 건 한 편의 시 때문이다. 울림이 2006년 소호분교에 있는 수백년 된 느티나무를 주제로 한 김성춘 시인의 시 '소호리 느티나무'에 곡을 붙이기로 하면서다.

울림은 작곡을 위해 6개월간 소호마을을 오가면서 소호분교 아이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고, 음악 공연을 했다. 그러던 중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본격적으로 마을문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울림의 시도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처음부터 고왔던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운영 첫해인 2011년 운영한 통기타교실과 청소년 연극교실에 대한 반응은 차가웠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생각한 울림 측은 김득용(57) 당시 마을 개발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이 요가와 색소폰 강좌다.

박 대표는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며 "소호마을 주민 스스로 삶 속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종류와 규모를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이보람(세계일보 기자)

초등생부터 80대까지 얼쑤~ 강화 열두가락농악 되살렸다

양사농악보전회 등 전국 70곳 지원받아 풍물 통해 주민들 소통과 화합

농산어촌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농어촌 신바람놀이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바람놀이 문화사업 지원 대상 가운데 한 곳인 강화군의 양사농악보전회 회원들은 강화도 열두가락농악을 복원하려는 자발적 노력에 정부 지원을 더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고, 풍물을 매개로 주민들 사이에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전통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양사농악보전회 회원들이 7월 10일 강화군 양사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을 축하하는 열두가락농악 공연을 하고 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너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풍물 공연을 하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야. 예전에 마을 어른들이 일하다가 풍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시간에 쉬지' 했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 이제야 알겠어."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주민 황봉례(67)씨. 7월 10일 오후 양사면사무소 마당에서 양사농악보전회 회원들과 함께 한바탕 신나게 농악놀이를 한 뒤 풍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연을 이렇게 말했다.

황씨는 양사농악보전회 총무다. 양사농악보전회는 강화도의 전통민요인 열두가락농악을 되살리고 있는 강화군 내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다. 이날 양사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기공식 축하공연은 열두가락농악의 하나인 파접놀이. 파접놀이는 모심기와 김매기를 한 뒤 즐기던 농악이다. 호적과 꽹과리·징·북·장구 등을 맡은 회원들이 강화도의 열두가락농악을 일정한 순서로 연주하는 동안,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하는 법고 춤꾼들의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졌다.

양사농악보전회 어린이 상쇠 노중수군.

양사농악보전회는 1960년대까지 명맥이 이어져오다 사라진 인화2리 풍물패의 열두가락농악을 되살리고자 3년 전 황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으며 만들어졌다. 총무 황씨는 어릴 때 인화리에 살았다고 했다.

"어릴 때 풍물 하는 어르신들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구경했지. 정월대보름 때에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복을 빌어주었는데, 어떤 집은 겉보리를 말로 담아 답례로 내주기도 했어."

지역주민들의 열두가락농악 되살리기 노력에 힘을 보탠 사람은 인천무형문화재 제12호 강화용두레질소리 예능보유자 황길범(52·강화읍)씨다. 예능보유자 황씨는 약 15년 전부터 강화군 내 13개 읍·면을 돌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우리 가락을 전수받아 2010년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일단 열두가락을 익혀야 놀이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열두가락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지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작한 '농어촌 신바람놀이 문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열의에 힘을 더했다. 신바람놀이 문화사업은 잊혀진 두레문화를 되살려 농산어촌 마을의 놀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물단에게 부족한 악기나 전문 강사들의 강습을 지원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국 풍물경연대회 잇달아 수상

양사농악보전회의 열두가락농악 복원사업의 경우 강사료를 지원 받았다. 자발적 노력에 강사의 열정, 정부지원에 힘입어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남 공주시에서 펼쳐진 전국농어업인두레풍물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또 강화고인돌축제 등 여러 무대에서 공연도 했다. 올해에도 양사농악보전회의 열두가락농악 복원사업은 신바람놀이 문화사업 대상(전국 70곳)으로 선정됐다.

열두가락농악 복원사업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다. 강화도 전 지역에서 모인 양사농악보전회 회원 50여 명의 연령은 어린이부터 80대까지 다양하다. 총무 황봉례씨처럼 평생 강화도에서 살아온 주민도 있지만, 초등학생 3학년·5학년 아들 형제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노창범(40·강화읍)씨처럼 귀촌인도 있다.

"서울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3년 전 강화도로 이사 오며 어떻게 공동체에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배우다 보니 주민들과 어울리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씨의 장남 중수군은 상쇠를 맡고 있다. 기공식 축하공연에서도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뻘 되는 어른들과 동생 중보와 함께 신나게 상모를 돌리고 법고를 두들기는 모양새가 제법 풍물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상모 돌리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어른들과 함께하니 예의도 배우고 좋아요. 앞으로 가족들과 세계여행을 할 계획인데, 가게 되면 가족공연을 하려 해요."

황길범씨는 "요즘 사람들은 핼러윈데이 같은 서양 명절은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정월대보름 문화는 잊어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공연을 마치고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먹고사는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잊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풍물을 통해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 가락을 복원하는 목적은 잊었던 생활국악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 02-3704-9452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 02-979-0248

지역문화공동체, 3가지 정책방향 세워 지원

'활동 공간' '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 성공모델 확산 통해 지역경제 이바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신설

2014년 시범사업 거점형센터 10개, 생활형 커뮤니티공간 50개

↓

2017년 거점형센터 100개, 생활형 커뮤니티공간 1,650개

공공문화시설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지방문화원

2013년 350개

↓

2017년 700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공동체의 '활동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그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지역문화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방향이다.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활동 공간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동아리 등의 활동 공간을 늘리기 위해 폐교나 마을회관 등 기존에 있던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화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만든다는 것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 거점형센터 100개와 생활형 커뮤니티공간 1,650개를 조성한다.

지역 기반 공공도서관도 적극 활용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영상편집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 활동에 필요한 시설·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공간도 마련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지원방안도 나왔다. 매월 문화·역사·철학 등 인문학 주제를 선정해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나왔다. 각 지역 공공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문화를 키운다. 지방문화원에서는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의 집'에서는 50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지방문예회관에선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를 지원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문화가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시설·의제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올해 7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역 단위마다 총 28개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문화의 복원·전승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농어촌 마을 단위로 전래되는 국악·풍물놀이 등을 복원한다. 올해 7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50개 마을로 지원을 늘린다.

자생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할 수 있는 문화활동가를 양성한다. 이러한 문화이모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활동가가 연간 200명 이상 나오게 된다.

법적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의 지정·지원과 국가·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지역별로 문화 여건을 비교하기 위한 지역문화지수도 올해부터 개발한다. G

글 · 남형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문화정책국장

"국민이 문화융성 주체가 되도록 지원"

"지역의 문화공동체는 자생적으로 생기거나 문화예술 단체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향유 및 생산 욕구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문화정책국장은 "특히 이러한 지역문화공동체는 소통과 갈등해소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활동이 두드러진 지역문화공동체들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업 주체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역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이 1회성 지원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카운슬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성과 정부지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정부지원은 지역의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형성된 지역문화공동체는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며 다른 지역으로 공동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문화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문화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는 지역문화공동체의 확산을 위해 내년에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역의 생활 속 작은 영화관·도서관 운영,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찬동 기자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이란 점도 문화의 역할 확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발표한 문화융성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며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국민들이 문화융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좀 더 넓고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것인데, 국민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융성의 기본은 사회가 물질적·양적·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정신적·질적 삶의 가치 중심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 중심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문화·한국학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모든 정부정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하면 문화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자연스레 뜻과 마음 모으는 게 중요”

묵묵히 앞에서 끌고 가는 힘과 구성원들의 헌신 속에 공감대 형성

현실적인 현안이나 경제적인 이슈에는 관심이 잘 모이지만 문화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공동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문화공동체'나 '문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처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어려움이 많다.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재구성해야 할 때도 있고 많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성과로 평가될 때는 독려도 해야 하며,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더욱이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주민의 반응이나 관심이 시원치 않거나, 때에 따라서는 거부감까지 보이는 경우를 만나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또 늘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신경 써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이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문서도 만들어야 하니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의 준비와 맷집이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시각, 그리고 취향도 천차만별일뿐더러 성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기획자라면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마음에 품되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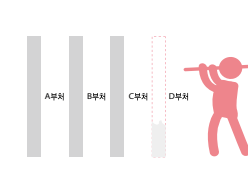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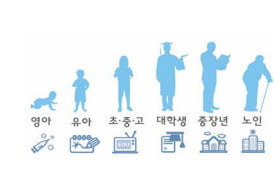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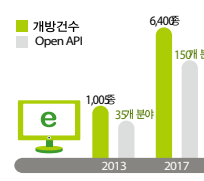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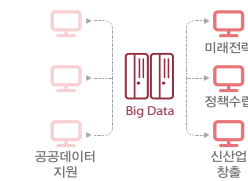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일이 어렵고 과정이 지난하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문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어느 사회나 편차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된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을 사랑하고, 시를 읊고, 마을의 벽화를 그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공동체에서의 문화예술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레 뜻과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무슨 거창한 운동이나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처음부터 공동체를 너무 앞세우지 말고, 소박한 규모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의도와 방법을 잘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중에 각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로 일단 시작을 하자. 그 안에서 자연스레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입소문이 나면 한 발짝 떨어져 보던 사람도 슬그머니 참여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에는 돈도 필요하니 각종 정부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게 또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길을 넓히거나 시설을 짓는 일이면 눈에라도 보일 텐데 문화적인 사업은 그 인식도 약하고 효과도 측정하기 난감하다. 그래서 억지 수요를 창출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여 문제가 되거나, 지원이 끊겨 중단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원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잣돈이거나 활성화를 위한 쌈짓돈 같은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지속성은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느 단계를 지나면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부담에 의해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문화활동의 결과가 구성원 개인의 취미나 활력에 그치지 않고,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지역의 여러 행사나 현안과 연계해 서로 유기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많은 성공 사례들이 멋진 프레젠테이션에 기대 성과 위주로 소개되다 보니 다 일사천리로 잘되어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땀과 눈물, 설득과 좌절, 갈등과 치유의 과정을 반복하며 누군가 묵묵히 끌고 간 힘과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 일에는 문화전문가와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합심이 필요하며 그 어느 일보다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G

글 ·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흡연자들 "내 연기 갈 곳을 잃어"

주점마다 금연 안내문… 가게앞·골목엔 꽁초 '골칫거리'

"담배연기를 피하러 가게 안에서도 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는데 금연구역이 되고 나니 비흡연자 입장에서 너무 편해요." (24세, 대학생 오지현)

"요즘은 흡연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우리 가게 손님들은 대부분 30, 40대라서 손님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 것 같고요." (32세, 막걸리주점 업주 이모씨)

정부가 15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주점, PC방에 대해 금연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이 된 지난 7월 8일 저녁 8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유흥가를 돌아봤다.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1킬로미터가량 걸어가는 동안 7~8군데 주점을 돌며 "흡연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모든 곳에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일부 가게에는 아예 현관문에 금연 단속 정책을 알리는 문구를 걸어놓기도 했다.

가게 한쪽에 쌓여있던 재떨이도 자취를 감췄다. 치킨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김재경(22)씨는 "담배 피워도 되는지 묻는 손님만 벌써 네 번째"라며 "뉴스에 금연 단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항의하는 손님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에 위치한 어느 대형 일본식 주점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흡연실이 완비되어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손님 대부분이 흡연실에 몰려 있다. 가게 직원 정모씨는 "1일부터 흡연실 이용 손님이 급격하게 늘어나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된 유흥가. 정부는 7월 1일부터 영업장을 대상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흡연자들로부터 볼멘소리도 나온다. 장맛비를 맞으며 흡연이 가능한 가게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최정훈(31세, 회사원)씨는 "작은 가게는 흡연이 된다고 들었는데 강남역 인근 주점과 음식점은 대부분 규모가 큰 곳뿐"이라며 불평을 늘어놨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국민건강을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갑자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하라니 너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술을 마시던 도중 가게 밖으로 나와 우산을 쓴 채 담배를 피우던 김모씨(40)는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담배를 태우러 계속 들락날락하니 눈치가 보인다"며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담배 피울 곳이 없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게 안 담배연기 사라져… 비흡연자들 대환영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김치찌개집에서 만난 양준영(33)씨는 "예전에는 이런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시비가 붙은 적도 있었다"며 "주점은 예외를 둘 수도 있지만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음식점과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막걸리주점의 업주 이모씨는 "비흡연자 손님들의 불만 때문에 가게 안 금연을 원칙으로 했는데 단속이 강화되고 나서는 오히려 담배 피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손님이 없어지고 가게 안 환경도 깨끗해져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마철이라 손님이 적은데 금연구역이 되면서 매출이 더 줄어든 것 같다. 돈을 들여서라도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가게 손님들이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다 보니 길가에 버려진 꽁초가 많이 늘어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점이 밀집한 골목 후미진 곳마다 여기저기 꽁초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청 보건부의 금연 단속 담당 이권희 주무관은 "하루 30군데의 영업장을 차례대로 돌면서 단속을 진행한다"며 "업주들이 영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단속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G

글·박미소 기자

서울시민의 간접흡연

자료 · 서울시(2012년)

중앙포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돼 공중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지났다. 7월 1일부터는 150평방미터 이상의 영업장(음식점, 커피숍, 주점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 포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면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거나 흡연을 허용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부터 19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며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장은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4년부터는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인사 불이익에 금연땐 포상금 이제 담배와 이별할 때 왔다

사옥 주변 1킬로미터 내 금연 시행… 인사팀서 암행감사도

직장 내 금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장부터 솔선수범해 담배를 끊으니 흡연자들은 곤란한 처지다.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한 개비를 무느니 차라리 끊겠다는 분위기다. 흡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제는 담배와 이별할 때가 됐다.

충북 충주에서 가구를 만드는 가나기업은 전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조원희(57) 사장이 정한 방침이다. 20년 전 담배를 끊은 조 사장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직장 내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금연을 독려하고 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동참하면서 현재는 담배연기 없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나기업 이승원(52) 이사는 "사장님이 담배를 끊은 뒤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금연을 주문한다"며 "직원들이 담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를 가공하는 효석도 임직원 70여 명 모두가 금연에 성공한 '금연사업장'이다.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서로 격려하며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다. 직원들은 총 570회에 걸쳐 보건소에서 소변검사를 받고,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금연 의지를 다졌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흡연 욕구와 금단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탕이나 젤리를 비치하고, 금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 100퍼센트 금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신명식(44) 부장은 "본인과 가정, 직장 동료의 건강을 챙기는 멋진 아빠, 좋은 동료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며 "시작은 어렵고 힘들지만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금연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힘든 직장생활, 담배 한 대에 뒷담화를 더하는 시간은 흡연자들에게 그 자체로 소중한 일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고 있다.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금연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수익을 포기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전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금호아시아나는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1995년부터 항공기 내 면세담배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금연 홍보교재를 배포하고, 금연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해 흡연율을 낮추고 있다. 고(故) 박성용 회장이 생전에 "흡연 여부는 개인사지만 흡연자를 승진시키지 않을 권리는 내게 있다"고 말한 것은 재계에서 유명한 일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앞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기업들이 금연 정책을 강화하면서 회사 주변에서 흡연하는 직장인의 모습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포토

실내 흡연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회사 주변에서조차 담배 피우기가 쉽지 않다. CJ그룹은 사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경우 담배 한 대를 피우려면 건물에서 15분을 걸어 나와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5~10분을 걸어 나와야 한다. 실내 흡연실이 있긴 하지만 장소가 협소해 나와서 피우는 일이 많은데 본관 입구는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연 장려금 100만원, 흡연 적발되면 110만원 물어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사의 엄포도 효과가 크다. 종합식품업체 대상이 대표적이다. 대상은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의 구성원이 흡연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명형섭(56) 사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들은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자신의 책상에 붙여놓았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회사 주변 흡연 행위를 살피기 위해 인사팀을 중심으로 암행감사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금연 성과를 부서평가와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했다. '흡연자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직책일 맡길 수 없다'는 내부 원칙 때문이다. 명 사장은 "먹거리를 다루는 식품업체 종사자들은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10월부터 대리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산화탄소 검사를 실시해 흡연 여부를 파악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에게 인사고과 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흡연하는 직원은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0년부터는 해당 검사를 일반 사원 전체로 확대했다.

금연을 결심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기업도 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연 서약서를 내는 대신 금연 장려금 100만원을 준다. 정기적인 소변검사로 흡연 여부를 점검하는데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11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보건소와 공동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이 10만원 내고 금연펀드에 가입한 뒤 금연에 성공하면 회사 지원금(10만원)과 실패한 직원의 납입금을 합해 배당금 형태로 나눠준다.

동양증권은 적립식 금연펀드를 조성해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한 직원이 매일 담뱃값 2,500원을 납부하고, 실제 적립식 펀드에 6개월간 투자한 후 금연에 성공하면 운용 수익까지 붙여 되돌려준다.

에너지 관리 전문기업인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역시 직원이 10만원을 내고, 회사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금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40만원을 담배를 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데 팀을 구성해 팀원 전체가 금연에 성공하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록(44) 사장은 "금연은 나 자신은 물론 동료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임직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G

글·장원석 기자

기업별 주요 금연 프로그램

기업	프로그램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전 사업장 금연구역 지정
대우조선해양	금연 서약서 쓰면 금연 장려금 100만원 지급
CJ	사옥 반경 1km 내 흡연금지
LG전자	금연펀드·금연강좌·금연 클리닉 운영
롯데마트	금연 직원에 인사고과 인센티브
동양증권	적립식 금연펀드 조성
대상	부서평가·인사고과에 반영
SK이노베이션	건강펀드 운영해 금연 성공 시 포상금 지급

창업 꿈꾸는 시니어들 오세요!

40세 이상 퇴직자 대상 사무실부터 사업자금까지 4단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청은 은퇴 후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2010년 10월, 송영민(43)씨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다. 송씨는 다른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아니면 창업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창업을 결심했지만 준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송씨에게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가장 부담스러웠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알게 됐다.

그는 "비즈플라자엔 복사기, 공동 작업실, 공동 PC실 등이 마련돼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일단 창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케팅, 회계, 정책자금 신청방법 등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씨는 배관자재를 수출하는 'GP인터내셔널'을 경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상반기 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3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비즈플라자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 13곳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원스톱 창업지원 공간

퇴직 후 창업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시니어 적합업종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40세 이상 퇴직자들을 위한 지원이다.

'시니어 적합창업 분야'는 스포츠·레저, 실버 도우미, 귀농 서비스, 농·특산물 재배·가공,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지원 등 40여 개 업종이 해당된다. 창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창업 초기기업은 누구든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위해 전문 컨설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입주공간·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원스톱 창업지원 공간'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시니어들은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1인실 또는 2인실 공간과 회의실을 제공받고 SNS 마케팅, 창업 기초교육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김성섭 창업진흥과장은 "비즈플라자 내에 상시적인 창업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전국 11곳에 있는 '시니어 비즈플라자' 외에 충북 청주(지난달 말)와 대구(이번달 말)에도 추가 운영한다. 이 외에 시니어 CEO 맞춤형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창업넷'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김혜민 기자

전국 13곳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역	세부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12층	02-944-6032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6층	070-7727-4100
	은평구	은평로 21길 52 은평구청 제3별관 2층	070-7710-9997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영동시장 2층	031-241-1713
	의정부시	경의로 114 영빈빌딩 4층	031-828-887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98 초이스빌딩 4층	051-205-1014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6-8번지 지산농협 2층	053-784-8261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신당동)	–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0층	062-236-3261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칠곡상공회의소 2층	054-973-9604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층	033-245-6800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320-2	052-277-1997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2번지 2~3층	070-4814-6515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 지원

신청자격
- 40세 이상 창업 희망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
-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자
-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자

사업기간
2013년 7월~11월 30일

창업 준비공간

창업 분야에 맞게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업체당 3~6㎡ 내외의 면적을 기준으로 사무공간 제공

1 실전 창업교육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총 30시간)

2 창업·경영 컨설팅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1개 업체당 최대 3일까지 받을 수 있음

3 창업 네트워킹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정기 개최

4 사업화 지원비

시제품 제작비·아이템 개발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업체당 2천만원 한도)

자료·중소기업청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3년 7월 15~31일
접수기관 충남 경제진흥원·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산 경제진흥원
문의전화 ☎ 042-363-7603
홈페이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100세 건강시대 정확한 의료정보 제공”

서울대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개소기념식 및 심포지엄

국민건강지식센터 개소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센터 설립 취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영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9.7세인데 건강수명, 즉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70.3년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평균 9년 이상을 병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질병은 개인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보건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건강 지식의 공유는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7월 9일 국민건강지식센터를 공식 출범하며 개소기념식과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의료 분야가 등장하는 요즘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건강 개념을 정립하고 학술적 근거를 가진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국민건강지식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사업은 ‘함께 나누는 건강, 함께 꿈꾸는 건강사회’를 목표로 내걸었다.

서울대 의대는 국민건강지식센터 개소를 준비하며 올해 초 세 차례 ‘국민건강나눔포럼’을 개최했다. 노동영(57)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의 주도하에 결성된 이 포럼에는 이철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의학계 인사뿐 아니라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승진 NHN 건강정보팀 부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 지식의 전달과 ‘건강 민주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모바일 기술과 융합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경제학자가 소득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여주는 등 의료계·의학계가 가졌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한 방법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자리였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국민건강지식센터 개소기념식 및 심포지엄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노동영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 심포지엄에는 삼성종합기술원 박상철 센터장이 ‘스스로 설계하는 100세 건강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장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본 장수와 건강에 대해 발표했고,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며 건강문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진룡 장관은 축사에서 “건강한 삶은 행복 그 자체다. 국민건강지식센터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밝혔다.

글·박미소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노동영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건강 문화운동 진행”

유방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노동영 교수는 서울대병원 암병원장과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핑크리본캠페인을 벌이며 유방암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노 교수는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이라는 직함을 하나 더 달게 됐다.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처럼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사회 구성원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예방이 중요하다. 그것도 기존의 방식처럼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고 위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의료적 차원이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식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멋진 인생을 보여주는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김난도 교수 말을 빌리자면 전인적 국민건강운동, 즉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국민건강지식센터의 활동과 역할이 무엇인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관련 정보는 포털 사이트 검색 정보 수준에 불과하다. 광우병, 사스(SARS), 살인진드기 등이 화제가 될 때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혼란에 빠지곤 한다. 이제 국민건강지식센터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뛰어난 수준의 의료 지식을 가진 서울대 의대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을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가 생소하다.

“국민건강문화운동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술 먹고 노는 여가문화보다 함께 운동이나 독서를 즐기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건강지표를 개발하는 목표도 세웠다. 허리 사이즈, 시력 등 건강에 관련된 지표를 세워 구성원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식이다.”

향후 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부분도 많고 문화운동을 위해서는 재단을 조직할 필요도 있다. 쉽지 않은 목표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무스타파 나지 사리바스 터키 대사

"6·25전쟁으로 맺은 형제국 관계 FTA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

'형제의 나라.' 터키인들이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터키는 6·25전쟁 당시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병사를 파병한 참전국이다. 무스타파 나지 사리바스 주한 터키 대사는 7월 12일 KTV에서 방송한 〈정전 60주년, 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터키의 6·25전쟁 참전 의미를 밝히고, 실크로드의 양 끝에 위치한 두 나라가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대기했다.

지미진 기자

6·25전쟁 당시 많은 터키 병사들이 '형제의 나라'를 돕자며 참전을 자원했습니다. 터키에 6·25전쟁 참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터키는 1차세계대전 당시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터키인들은 독립과 자유의 중요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죠. 당시 터키는 무스타파 케말(터키 건국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승리를 거뒀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께서는 한국에서 터키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데, 양국이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은 언제부터 갖게 됐는지요.

"터키는 6·25전쟁 당시 약 1만5천명의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여 명이 전사했고, 2천명은 다쳤습니다. 또 400여 명은 실종되거나 전쟁포로가 됐습니다. 터키는 한국을 위해 최대한 헌신했습니다. 터키 병사들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역사 강연을 통해 터키가 한국에 기여한 부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국의 길고 뿌리 깊은 관계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형제의 나라'가 된 건 터키의 6·25전쟁 참전부터입니다. 6·25전쟁으로 양국은 형제국이 됐고, 터키는 이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터키인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터키인들은 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했습니다. 아시아가 고향인 셈이지요. 과거 한국과 친척 또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양국은 문화와 전통도 비슷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노인을 공경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터키어와 한국어는 '우랄·알타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문장 구조와 문법이 매우 흡사하지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 와서 매우 친밀감을 느꼈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같은 중요한 도시의 명예대사로 위촉된 것은 저에게 영광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경을 말씀해주신다면.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주와 이스탄불이 함께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스탄불과 경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도시 모두 자국의 역사와 문화의 수도입니다. 경주는 1천년 간 신라의 수도였고, 이스탄불은 마지막 오스만까지 3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경주는 실크로드의 극동, 이스탄불은 극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문화엑스포는 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 행사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 터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터키 관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를 좋아하고 이러한 역할에 따라 명예대사로 위촉된 것 같습니다. 큰 영광으로 여기며 명예대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꼭 봐야 할 즐길거리들을 소개해주십시오.

"세계문화엑스포 기간 동안 퍼레이드와 공연, 콘서트, 전시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이스탄불에는 또한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들인 톱카프 궁전, 돌마바흐체 궁전, 아야 소피아 박물관, 에미노뉘 광장, 탁심 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인 보스포루스해협(유럽과 아시아 사이)을 잇는 다리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방문하면 동시에 두 대륙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두어 달 됐습니다. 한·터키 FTA가 양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국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형제국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FTA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경제적·상업적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자유무역을 위해 FTA가 필요합니다. 현재 터키는 약 21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터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한·터키 FTA는 터키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은 터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터키는 유럽, 발칸 반도, 러시아,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에 있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3~4시간 비행거리에 56개국이 있고, 이들은 15억 인구와 2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의 수출기업들은 서로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가능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약 70억 달러 규모인 교역량이 2~3년 내에 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터키에 대해 친근감은 느끼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터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터키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구는 약 7,500만명입니다. 터키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거의 모든 국제단체에 가입했습니다. 흑해경제협력체(BSEC)의 창설을 처음 제안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럽평의회(COE)의 초창기 회원국이며, 현재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규모로는 전 세계 16위, 유럽 내 6위입니다.

터키는 유명한 관광국가로 작년에만 3,2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 수로는 전 세계 6위, 관광 수입으로는 전 세계 9위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터키를 더 많이 방문하길 바랍니다. 연간 1,200만명의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중 터키를 찾는 관광객은 15만명뿐입니다. 터키를 찾는 3,200만 명 관광객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터키를 방문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터키인들은 한국인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데, 터키를 방문하시면 한국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에서 K팝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문화 팬클럽 회원이 약 10만명에 달하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높습니다. 터키인들은 이미 한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양국 간 관계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과 터키 양국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G

정리·박경아 기자

"다큐멘터리보다 사실적인 사회 비판 영화 가능하다"

유지태(38) 감독이 마침내 장편 데뷔작 〈마이 라띠마〉를 내놨다. '마침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가 이 작품을 거의 10년 동안 준비했고, 여러 단편영화를 연출하며 감독으로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영화 연출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점에서 〈마이 라띠마〉는 유 감독이 연출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작품이라 봐도 무방하다.

중앙포토

1998년 〈바이준〉 주연으로 데뷔한 유지태는 2000년 〈동감〉에 출연하며 충무로 대표 배우로 떠올랐다. 〈올드보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이 대표작이다. 2003년 〈자전거 소년〉으로 연출을 시작해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 〈초대〉 등 다수의 단편영화로 연출력까지 인정받았다. 〈마이 라띠마〉는 그의 첫 장편영화다.

〈마이 라띠마〉는 외국인 노동자 마이 라띠마(박지수)가 한국에서 편견과 폭력에 시달리다 우연히 만난 수영(배수빈)과 서울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과정을 그렸다. 겉으로 보면 멜로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저 눈물을 자극하는 최루성 드라마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영화에는 서울에서 악전고투하는 마이 라띠마의 시선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청년 실업의 그늘진 풍경, 그리고 노숙자 같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등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유지태 감독은 "장 피에르 다르덴 감독이 '극영화가 다큐멘터리보다 더 리얼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에 동감한다"며 "극영화로도 사회에 비판적인 사실주의 영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평소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인 그는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가 예전부터 영화로 다루고자 했던 소재이기도 했다.

유 감독은 "인생의 목표가 사회복지사"라고 할 만큼 봉사활동에 애착이 많은데, 서울 YMCA 홍보대사,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려진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면 나비효과가 더 크다. 유명인으로 살면서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어쩌면 유 감독은 〈마이 라띠마〉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척박한 삶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화두를 던졌다. 센 화면으로 소재를 부각시킨 것. 영화는 마이 라띠마가 겁탈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장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감독으로서 고민인 게, 과연 어디까지 진짜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솔직히 몇몇 감독들은 배우를 학대하면서까지 사실성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폭력적이거나 노출이 심한 장면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촬영해야 관객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배우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유 감독은 지독한 영화광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늘 소지하고 다니는 아이패드 미니에는 평소에 챙겨 보지 못한 영화들이 빼곡하게 저장돼 있다. 당연히 〈마이 라띠마〉는 그가 평소에 존경했던 감독들의 작품이나 좋아했던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

"수영이란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아벨 페라라 감독의 〈배드캅〉이 떠올랐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수영의 모습을 만들면서 영감을 받았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정사〉에서 느껴지는 아찔한 정서를 영화에 녹여내고 싶었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펀치 드렁크 러브〉의 유니크하고 개성 강한 캐릭터도 참고했다."

'배우 출신 감독'이란 편견과 싸우는 중

무엇보다 〈마이 라띠마〉는 그의 열정이 빚은 결과물이다. 그가 자신의 데뷔작에 배수빈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전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우연히 수빈씨의 모습을 봤다. 시간표를 체크해 가면서 다큐멘터리를 꼼꼼히 챙겨 보더라. 그 모습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였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돈만 좇으며 연기를 하는 생활형 연기자들이 많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수빈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시나리오를 주면서 모니터를 부탁했다.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수영이 열아홉 살 소년이었는데, 수빈씨로 캐스팅하면서 나이를 수정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순수와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드물다. 〈마이 라띠마〉는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후 3년간 공백 상태로 붕 뜬 시기를 보냈다. 결국 유 감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다.

"사실 배우가 영화를 만든다니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어떤 감독은 '너 이제 영화 찍으면 나중에 연기 못해'라는 말도 하더라."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투자사의 번복,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영화를 찍고, 개봉하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에 덤벼들었다.

"현장에서 하루에 25컷 이상 촬영하지 않았다. 배우로 일하면서 깨달은 건데, 컷이 많아진다고 작품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영화 제작 지분의 70퍼센트를 스태프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저예산 영화라고 재능기부를 한다는 개념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저예산 영화일수록 스태프의 처우나 작업 환경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유비컴

〈마이 라띠마〉는 외국인 노동자 마이 라띠마(박지수)가 한국에서 편견과 폭력에 시달리다 수영(배수빈)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과정을 그렸다.

배우 출신 감독이라는 꼬리표의 무게도 그를 억눌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연하게 대처했다.

"사실 배우 출신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어떤 때는 벽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수빈씨한테도 감독님 호칭을 빼고 그냥 지태씨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조감독은 날 '지태형'이라고 한다(웃음)."

유 감독은 매사에 철저하다. 인터뷰 내내 '경영'이라는 단어를 자주 꺼냈는데 그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 감독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 하루를 살아간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며 "스케줄이 많을 때도 틈나는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철저함은 아내에게도 투영된다.

"집안일은 효진이와 나눠서 한다. 사실 아버지 세대만 해도 부엌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시대다. 한국 남자들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한다(웃음)."

유 감독은 꾸준히 자기분열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활동가로서 그는 자신을 세상이라는 무대에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 G

글·지용진(중앙일보 매거진 M 기자)

아빠! 어디가? 캠핑 갈거죠!

CAMPING

캠핑이 대세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 인구는 130만명을 넘었고 전국의 캠프장은 1천개를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휴가계획 조사결과'를 보면 올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은 63퍼센트, 이 가운데 87퍼센트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펜션·콘도 여행객도 많겠지만 최근 급증하는 캠핑 인구를 보면 여름휴가로 캠핑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캠핑의 인기가 올라가니 여기저기서 초보 캠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걱정은 일단 장비를 갖추는 것.

전문가들은 캠핑 장비는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부족한 장비는 캠프장에서 빌리거나 임기응변으로 대처해도 충분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볍고 쉽게 떠나는 캠핑이 인기다.

캠핑 장비에 대한 고민을 끝냈다면 이제는 캠프장을 고를 차례다. 인기 있는 캠프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곳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전국에 여름 피서지로 안성맞춤인 캠프장이 많다. 특히 수영장을 갖췄거나 천혜의 절경에 자리 잡은 독특한 캠프장을 찾아가면 즐거움이 배가된다.

첫 캠핑이라면 예약하기 힘들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프장이 편리하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이 잘 갖춰졌고 비용도 저렴하다.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가 마련돼 있어 팩을 박거나 줄을 매는 데 어려움이 없다.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캠프장 선택이 편리하다. 캠핑 동호회는 대부분 캠프장에 따른 특성을 정리해놓은 게시판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에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 '캠핑로드맵' 서비스는 정보를 얻기 좋다. 전국 캠프장 가운데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다섯 곳을 선정해봤다.

글·이다일(세계일보 기자) / 사진·김용석, 곽용성(캠핑로드맵 운영자)

수영장 있는…

영월 '상순네 오토캠핑장'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571번지
☎ 010-8994-3167
30동 규모, 무선인터넷, 전기, 온수, 화로대, 샤워장, 매점, 사이트 주변 주차가능, 애완견 동행불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캠프장이다.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캠프장은 계단식 사이트로 구성됐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인근의 신설 캠프장과 차별화된다.
30동 규모의 작은 캠프장이지만 주인장의 아낌없는 투자가 돋보인다. 특이한 것은 2개의 수영장이 캠프장 내에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수영장 역시 계단식으로 구성돼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린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제천이나 단양을 거쳐 들어간다. 주변에는 고씨동굴, 묵산미술박물관, 김삿갓유적지, 조선민화박물관 등의 볼거리가 있어 오가는 길도 즐겁다.
해발 400미터의 산속에 있어 여름에도 선선한 기온이 유지된다. 넓은 샤워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개수대, 깔끔하게 마무리한 화장실은 여성 캠퍼들이 특히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다. 초기에는 사이트 전체를 잔디로 꾸몄지만 오래 버티질 못해 파쇄석으로 일부 교체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피서 캠핑으로 적합하다.

카약 탈 수 있는…

영천 '임고강변 공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3
☎ 054-330-6608
50동 이상,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 사이트 주변 주차가능

2009년 개장한 임고강변공원에 있는 캠프장이다. 시설은 무료로 운영되며 여름 성수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차요금 1천원을 받는다.
공원에는 물놀이장, 분수, 농구장, 미니축구장, 족구장, 정자,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 어지간한 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다. 강 건너에는 높이 60미터, 폭 25미터의 인공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특히 수영장은 아이들이 놀기 적합하게 2곳으로 나눠 설치돼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고 공원 내의 분수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물줄기를 뿜어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료 시설인데도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어 인기가 좋다.
강에는 카약을 비롯한 놀이기구가 준비돼 있고 수심이 얕아 안전하다. 공원 입구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있고 시내로 2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농협 등 대형 마트가 있다. 별이 잘 보이기로 소문난 영천이니 밤에는 텐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봐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영천 천문대를 찾아가 하늘 가득한 별을 감상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애견과 함께…

양주 '그린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293번지
☎ 010-2312-1902
텐트 40동,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 전기, 간이매점, 애견 수영장, 애견 샤워시설

집에서 항상 함께하는 애완견이 있다면 피서도 함께 가고 싶은 것이 당연. 하지만 일반 캠프장은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애완견이 없으면 출입 불가능한 캠프장이 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나 약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린빌은 애완견을 동행해야 캠핑을 할 수 있다. 넓은 잔디밭에 40동의 텐트만 받는 이유도 애완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원래 애완견 운동장이라는 독특한 시설로 운영하다가 1년 반 전에 캠프장으로 바꿨다. 덕분에 애완견과 함께하는 캠퍼들에겐 최고의 시설로 꼽힌다.
애완견을 위한 별도의 수영장이 있고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캠프장 내에서 애완견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서로 영역표시를 하느라 텐트에 살짝 실례를 해도 모든 캠퍼가 애완견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해해준다. 캠프장에서는 애완견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리어카를 이용해 짐을 옮기면 된다. 애완견 없이는 출입금지!

바다가 있는…

통영 '솔밭가족캠프촌'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 99-2
☎ 055-650-6375
선착순 예약,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 매점, 사이트 주변 이동 주차

솔밭 캠프장은 전국에 많지만 비진도 해변은 캠핑 이전에도 유명한 피서지였다. 통영항에서 약 1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배로 40분 정도 걸린다. 성수기인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만 하루 10대의 배편이 오가고 평소에는 하루 세 편 정도가 다닌다.
넓은 백사장에 텐트를 칠 수 있으며 유료 샤워장과 매점 등이 있어 편리하다. 안 섬과 바깥 섬을 잇는 약 500미터의 긴 백사장은 비진도 해변의 독특한 특징이다. 외항 선유대 흔들바위에서 보면 해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변은 동쪽이 자갈밭으로 돼 있고 서쪽은 고운 모래사장이다. 수온이 적당해 여름철 피서지로 좋고 남해안의 다른 섬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 있는 캠핑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유명 낚시터가 있어 인기가 좋다.
캠핑을 간다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니 짐을 가능한 한 가볍게 준비해야 한다. 차를 통영에 두고 출발해야 하므로 주차비 부담이 있지만 섬의 빼어난 절경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불편함일 뿐이다.

피톤치드가 있는…

남해 '편백자연휴양림 캠핑장'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4-1
☎ 055-867-7881
데크 29개, 무선인터넷, 화장실, 개수대, 화로대, 사이트 주변 이동 주차

남쪽 지역으로 캠핑 휴가를 가고자 하는 캠퍼라면 이 캠프장을 주목하면 좋다. 산 전체에 편백나무가 가득해 이국적인 풍경을 이룬다.
캠프장은 계곡을 따라 양쪽으로 나뉘는데 아래쪽은 편백림 군락지에서 캠핑할 수 있고 위쪽은 잔디광장을 끼고 있어 탁 트인 느낌을 받는다.
빽빽한 편백림 덕분에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늘이 지고 수영장도 있어 물놀이를 즐기기도 좋다. 계곡은 층층이 나뉘어 물을 담고 있어 아이들의 물놀이에도 좋다.
이곳 휴양림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야영장 외에도 통나무로 만든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야영장도 데크 크기에 따라 구분되며 자동차를 바로 옆에 둘 수 있는 오토캠프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화장실, 개수대 등은 통나무로 마련돼 운치를 더하고 족구대와 야외 수영장도 있어 여름철 물놀이에 좋다.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다는 편백나무로 조성된 산책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의 시설과 휴양림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여름철 캠핑 Tip

1 **무더운 여름철에 캠핑을 떠나려면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먼저 여름철 음식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운반·보관한다.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기나 생선은 특히 별도로 포장해 관리해야 한다.
캠핑에는 대부분 삼겹살 등의 육류나 새우·조개 등의 어패류를 가져가는데 다른 음식들보다 쉽게 상하므로 반드시 비닐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야 한다.

2 **여름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날씨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계곡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사이트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한다.
또 낮에는 날씨가 맑아도 밤이 되면 비가 올 수 있으니 물가에 텐트를 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강원도를 비롯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여름에도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 반드시 보온을 위한 긴소매 옷을 준비하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두툼한 옷이 필수다.

3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그늘을 찾아 사이트를 구축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생겨난 수도권의 캠프장에는 큰 나무가 없어 타프로 그늘을 만들어야 한다.
타프를 설치할 때도 요령이 있다. 해가 드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침반으로 해의 방향을 찾아 설치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나침반 기능이 있으므로 어느 방향으로 출입구를 만들 것인지 설계를 꼼꼼하게 한다.

4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준비하면 좋은 물건들이 있다.** 해먹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인터넷 쇼핑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캠프장에는 미리 설치해놓은 경우도 있다. 만약 어린아이를 동반한다면 의자, 유모차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물놀이가 많은 계절임을 감안하면 디지털카메라 방수팩은 필수다. 비가 왔을 때 사용하기도 좋고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부담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괴당고택은 사랑채가 사라져 곧장 마당을 낀 안채와 마주한다.

논밭과 돌담이 선과 색의 대비를 이뤄 여름만의 볼거리를 연출한다.

경북 예천 금당실마을 사괴당고택과 우천재

곱고 기나긴 돌담 따라 옛님들의 숨 흐른다

돌담이 고운 골목길을 걷는다. 마을 초입의 사괴당고택을 출발해 깊숙이 우천재를 지난다.
고택들은 저만의 표정으로 고개를 내민다. 대문을 활짝 열어 사람을 맞는다. 그 너머의 텃밭은 푸르러 탐스럽다.
어디서 묵든 금당이다. 십승지의 평온을 벗 삼은 하루다.

예천읍내로 접어들자 가로수가 곱다. 2차선의 아스팔트를 따라 간간이 짙은 초록의 터널을 만든다. 시원스러운 길이다. 용문면사무소에 이를 때쯤에는 사면의 산세가 시계를 가득 채운다. 북쪽의 매봉과 서쪽의 국사봉, 동쪽의 옥녀봉과 남쪽의 백마산이다. 연꽃 같은 금당실마을을 품어 안는다. 승지의 위엄이다.

금당실마을은 〈정감록(鄭鑑錄)〉의 십승지에 해당한다. 흉년, 전염병, 전쟁 등의 화를 피할 수 있는 10곳의 마을 가운데 하나다. 마을에는 금곡천이 지나는데 사금이 나왔다. 금당실이나 금곡으로 불리는 이유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청동기시대부터다. 15세기에 이르러 감천 문씨가 정착하며 마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어 함양 박씨와 원주 변씨 사위가 들어온 후에는 그들의 후손이 번성했다. 지금도 두 씨족이 마을의 절반 가까이를 이룬다. 함양 박씨 3인을 모신 금곡서원, 함양 박씨 입향조 박종린(1496~1553)의 제사를 지내는 추원재 등이 그 자취를 전한다.

무엇보다 옛집들은 고샅과 나란히 길을 내는 담장이 압권이다. 금당실마을의 돌담길은 약 7,400미터에 달한다. 마치 미로를 그리듯 마을 곳곳을 지난다. 옛날에 한 새우젓 장수가 새우젓을 팔러 왔다가 집을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마을 초입에는 민속자료 제179호 사괴당(四槐堂)고택이 위치한다. 원주 변씨 변응녕(1518~1586)이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찾기는 어렵지 않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의 도로와 곧장 접한다. 고택의 동쪽 바깥으로는 역시나 길게 이어지는 돌담이다. 집을 에두르는데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문다. 돌담도 눈길을 끌지만 그 가운데 솟은 2층의 초가 대문채도 흥미롭다. 가운데 대문간이 있고 남쪽에 문간방이, 북쪽에 창고가 각각 한 칸씩 붙어 있다. 바깥에서 오르는 3칸 규모의 2층은 장마루를 깔았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고 한다.

대문채의 북쪽 계단을 오르면 사괴당고택 담 바깥으로 너른 밭과 빈 터다. 그 땅의 경계에 다시 한 번 긴 담이 가장자리를 둘렀다. 구한말 법무 대신을 지낸 이유인의 집터다. 99칸의 한옥으로 위급할 때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모시려 했다. 시간이 지나 집은 사라지고 노송 두 그루만 남았다.

사괴당고택의 본채는 안채만 덩그러니 남았다. 원래는 안채 앞쪽에 'ㄴ자' 형의 사랑채가 위치했었다. 안타깝게도 그 터만 남아 안마당이 광장히 넓다. 예전에는 연못과 정자도 있었다. 면사무소 자리가 옛 연못의 터다. 그 주변으로 네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 해 사괴당(四槐堂)이다. 이제는 모두 고사하고 한 그루만 남았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 나무다.

사괴당고택의 2층 초가 대문채 흥미로워

안채는 'ㄷ'자형으로 남향의 집이다. 80센티미터 남짓한 높이의 기단 위에 팔작지붕을 이었다. 3칸의 안방과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날개를 갖는다. 서쪽에는 부엌과 방이다. 동쪽에는 마루방과 온돌방이 위치한다. 안대청에서 뒤뜰로 난 문을 열면 약초밭이다. 그 사이로 들꽃들이 피어 아름답다.

사괴당고택에 원주 변씨의 후손들이 기거하지는 않는다. 이원희(56)씨 부부가 2년째 살고 있다. 한옥을 가꾸는 손길이 알뜰살뜰해 집 안이 정갈하다. 고택 숙박이라는 역할에도 충실하다.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고택을 넘나든다. 옛 집과 새 주인이 어울려 조화롭다. 고택은 그리 또 한 살 한 살을 먹으며 제 몸의 묵은 때를 씻는다.

1 사괴당고택 안채의 대청마루에는 주인장의 손때가 묻어난다.
2 사괴당고택의 담 너머에는 99칸 규모의 이유인 집터가 남아 있다.
3 일제강점기에 지은 독특한 풍모의 사괴당 2층 대문채.
4 금당실마을의 돌담길은 한층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사괴당고택에서 용문면사무소 옆길로 걸음을 옮긴다. 여전한 돌담길이다.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며 집과 집 사이를, 밭과 밭 사이를 잇는다. 곧 우천재(愚泉齋)다. 사괴당고택과 더불어 하룻밤 묵기 좋은 고택이다. 사괴당고택이 원주 변씨 집안의 흔적이라면 우천재는 함양 박씨의 대표적인 고택이다. 1681년 건축된 이후 몇 차례 보수를 거쳤다. 현재 건물은 1870년에 건축했다. 박좌상(74)씨 부부가 읍내로 이주한 후에는 아들 박정호(48)씨가 거주한다.

우천재의 대지는 남서향의 긴 장방향이다. 대문채에서 북동쪽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본채로 향한다. 마당은 제법 넓다. 남쪽에는 우물이 있고 그 곁으로 장독대가 위치한다. 장독대는 보통 안채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른 바깥마당을 활용했다. 박씨가 직접 전통 방식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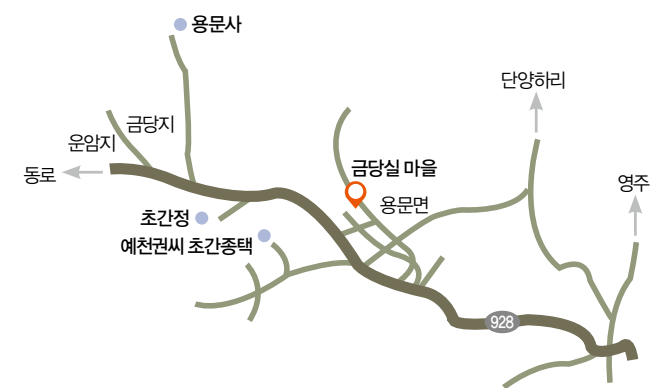
고즈넉한 우천재 사랑마루는 맑은 선비의 터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에 닿는다. 정면 6칸의 건물이다. 낮은 기단 위에 모습이 단정하다. 동쪽으로는 곳간채가 붙었다. 그 사이로 난 중문을 통해 안채로 들어선다. 안채는 2단의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현대식 창틀을 설치했다. 일말의 아쉬움이다.

사랑채와는 서로 정면 크기가 달라 서쪽에서 모서리가 만나는 것도 특징이다. 안마당은 자갈을 깔았는데 그리 넓지는 않다. 우천재는 안채보다 동쪽의 바깥사랑이 더 매력 있다. 2칸의 사랑마루를 갖었는데 좌탁 위에서 책장을 넘겨도 좋겠다. 고즈넉한 공간이다.

우천재라는 이름은 박씨가 증조부의 호를 따서 지었다. 스스로를 낮추어 부른 '어리석은 샘'이라는 의미다. 집도 이름을 닮았다. 깊고 넓은 도량이 스민다. 화려하고 화사하기보다 사람 냄새가 짙다.

우천재에서 길을 따라 걸어 오르면 반송재(伴松齋)다. 마을에 있는 고택 가운데 가장 크다. 하지만 그 또한 초가를 인 대문이다. 집 안 뒤뜰에는 따로 텃밭을 두었다.

사괴당고택이나 우천재도 마찬가지다. 초가 대문에 텃밭을 갖는다. 집집이 우물을 둔 것도 흥미롭다. 금당실마을의 색깔이다. 반가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았다. 얼핏 양반의 고택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보다는 서민적이고 검박한 풍모다. 가세를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평온한 마을이 주는 넉넉한 기운이다.

지게나뭇길이라 불리는 마을 골목 산책과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469호 송림도 권한다. 마을 사람들은 '쑤'라고 부른다. 마을 서북쪽에 있는 약 800미터 길이의 소나무 방풍림이다. 한때는 2킬로미터에 달했다. 오미봉 정상의 오미정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전경도 일품이다. 승지의 전경을 실감한다. 하루를 묵으면 마을 곳곳의 여유로움이 몸 깊숙하게 스민다. 금당실의 진짜 금은 그 옛날의 사금이 아니라 바로 넉넉한 누림이고 쉼이 아닐는지. G

글과 사진 · 박상준(여행작가)

우천재 주인장 박정호씨
"독도가 우리 땅이듯 한옥도 우리의 집이지요"

우천재는 함양 박씨 집안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이다. 박정호(48)씨는 아버지와 함께 예천읍내에 살았다. 그때는 조부모가 우천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우천재를 찾았다. 최근까지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다. 그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사진 작업을 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까지 3대를 이어 사진가로 살았다. 그가 우천재에 머물기 시작한 건 5년 남짓하다. 부모님이 예천읍내로 주거지를 옮기며 흉가로 버려질 처지가 되자 그가 자발적으로 내려와 머물기 시작했다.

"한옥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한옥도 우리 집이고 우리 문화거든요."

서울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향의 고택에 내려와 살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오히려 내려온 후에 집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다. 우리 먹을거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5년 전부터 직접 된장과 간장을 담근다.

"실상 된장과 간장도 전통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조금 그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된장과 간장의 맛이기만 할까. 그가 깨달은 한옥살이의 깊은 참맛이다.

여행수첩

중앙고속도로 예천IC로 나와 928지방도로 예천읍 방면. 예천공설운동장 지나 동본교 건너 우회해 용문 방면. SK용문주유소 지나 우회전 금당실마을(사괴당고택, 우천재).

예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대심리 승강장까지 90미터 이동 후 용문사 방면 버스 이용해 상금곡 하차. 삼거리에서 북쪽 방면 300미터 이동해 금당실마을(사괴당고택, 우천재).

중앙선 영주역에서 하차. 경북선 예천역 방면 환승. 예천역 앞 삼거리에서 150미터 직진. 대심리 승강장에서 용문사 방면 버스 이용 상금곡 하차. 삼거리에서 북쪽 방면 300미터 이동하면 금당실마을(사괴당고택, 우천재).

전국을 달리는 청포집 청포묵 하나로 전국에 소문난 맛집이다. 청포묵정식과 탕평채 등을 내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2대째 이어오는 60년 전통의 맛집.
문의 ☎ 054-655-026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22-23

사괴당고택 ☎ 010-3600-7325,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30
우천재 ☎ 010-3234-2238,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468

배추김치의 아삭함, 김치말이 국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내력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를 흔히 본다. 우리의 국민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먹는 통배추김치는 예상외로 역사가 짧다.

지금의 배추김치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고추가 김치의 양념으로 일반화되고 외래 채소인 결구배추를 재배하면서부터 담가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흔히 삼국시대 이전부터라 유추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시절의 식품 관련 문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地 東夷傳)〉에 "고구려는 발효식품을 잘 만든다"는 기록이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김치의 존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문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일본 문헌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나라시대(710~794)에 건축된 동대사(東大寺) 정창원(正倉院)의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나 평안시대(794~1185년경)의 문헌인 〈연희식(延喜食)〉을 보면 소금·술지게미·쌀가루·초 등에 채소를 절인 김치의 원형, 지물(漬物)이 종류별로 등장한다. 우리의 기록으로는 고려 중기의 문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김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장을 곁들이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得醬尤宜三夏食) /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을 넘긴다(漬鹽堪備九冬支)"고 무김치를 노래한 바 있다.

15세기 중반에 저술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 〈산가요록〉에 가지, 오이, 파, 송이, 생강, 토란 등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허균의 〈도문대작〉이나 〈음식디미방〉에도 죽순, 산갓, 동아, 나박김치는 나오는데 배추김치는 보이지 않는다. 배추김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은 1766년에 나온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로 침숭저법(沈菘菹法)이라는 명칭의 담그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증보산림경제〉에는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도 최초로 등장한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로 알려져 있다. 1613년에 출간된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設)〉에 "고추에는 독이 있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 그 이름을 왜개자(倭芥子)라 한다" 했는데 그것이 100여 년이 지나서야 김치에 양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오늘날의 장아찌 같은 것을 김치 대신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27년경에 발간된 〈임원십육지〉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소개하면서 고추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가 그제야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포토

그러다 19세기 말의 〈시의전서〉에 비로소 통배추김치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시절까지만 해도 통배추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흔히 먹는 김장김치는 1950년대에 우장춘 박사가 품종개량을 통해 만들어낸 결구배추 덕분이다. 따지고 보면 김치의 역사는 길어도 통배추김치의 자취는 100년 남짓하다.

배추김치로 해 먹는 가장 원조적인 음식이 김치말이다. 김치말이는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겨울에 밤참으로 즐기던 가정음식이다. 추운 겨울밤에 출출해지면 묻어둔 김장독에서 김치를 꺼내 살얼음이 낀 김치 국물에 잘게 썰어 넣고 참기름과 깨 등을 친 뒤 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던 이냉치냉의 음식이다. 메밀묵이나 빈대떡이 있으면 식성에 따라 넣어 먹기도 한다. 서울시청 뒤의 '리북손만두'와 삼청동의 '눈나무집', 주교동의 '우래옥'에 가면 특색이 조금씩 다른 시원한 김치말이를 맛볼 수 있다. G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관리들 농간을 막아라" 백성 편에 선 세제 개편

연합

대동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대동법 시행 기념비'이다.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 있다.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군(1575~1641, 재위 : 1608~1623)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 중립외교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왕통 강화를 위해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한 '폐모살제(廢母殺弟)'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외교와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정작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명이 없다.

사실 광해군이 즉위 직후 단행한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막혀 실시하지 못했던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시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조(田租)와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貢納)이었다. 공납은 농민이 호별(戶別)로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관청의 서리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필요한 특산품을 미리 사들여 농민에게 비싸게 받아내는 방납(防納) 혹은 대납(代納)의 폐단이 컸다. 임진왜란 후 공납제의 폐단은 더욱 커져서 호피(虎皮) 방석 1개의 대납 가격이 쌀 70여 석이나 면포 200필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란 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토지조사 사업과 백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제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광해군은 1608년 왕위에 오른 후 공납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 광해군의 구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었다.

〈광해군일기〉에는 광해군 즉위년 5월 7일에 대동법을 추진할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원익은 "매년 봄과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고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광해군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大同)'이란 용어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말이다.

기존에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쌀로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 대동법의 핵심이었다. 특히 기존에는 호별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부과 단위를 토지 결수에 둠으로써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의 세금 부담을 크게 하였다. 대동법 체제에서의 세금은 처음에는 토지 1결당 16말씩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조정되어 1결당 12말로 확정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주와 중간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쳤다. 대동법의 확대 실시는 지주들의 저항, 산간 지역이나 해읍(海邑)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부닥쳤다.

효종 때에 김육은 '안민(安民)'을 강조하면서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실시를 실현시켰고, 이후 대동법은 숙종 대인 1677년에 경상도, 1708년 황해도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대동법이 지세(地稅)로 통합될 때까지 존속하였음을 고려하면 광해군 때 첫 단추를 끼운 대동법의 역사는 오랜 기간 계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된 삶을 보호하게 하는 정책으로 당시에도 분명히 추진해야 할 세제 개혁이었다. 그런데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은, 세금의 부과 단위가 호별에서 토지 결수로 되면서 땅을 많이 보유한 지주들이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부자에 대한 증세, 소득세 과표(課標) 구간의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대동법 시행을 둘러싼 진통을 현재의 세제 개편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G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다행이야, 이제 만나서〉

KBS희망로드대장정팀 지음
중앙북스 · 14,800원

배우 안성기·배종옥·송일국·고수·양동근·한혜진·윤은혜, 가수 보아가 2012년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등 8개국에 봉사를 떠나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KBS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로드 대장정'의 세 번째 이야기다. 이번 희망로드의 주제는 '길 위의 아이들'이다. 희망로드 대장정 제작진은 "험난한 인생길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며 "아이들이 걸어왔던 가시밭길을 찾아 안전한 길로 닦아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1960~1970년대 '서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흥 부국으로 떠올랐던 나라. 그러나 2002년 경제, 종족, 종교 갈등으로 촉발된 내전으로 기적은 물거품이 됐다. 2010년엔 정부군과 반군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 도시에서만 1천여 명이 학살됐다. 서아프리카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 코트디부아르의 현주소다. 2011년 4월, 내전은 종식됐지만 나라 곳곳은 황폐해졌다.

지난해 4월, 배우 안성기씨가 이 땅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열 살짜리 남자 아이 '밤바'를 만났다. 밤바는 새벽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숯가마에 물을 뿌리고 숯을 꺼내고, 썩은 숯을 골라내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숯가마 터와 시장을 빼고는 가본 곳이 없고, 만나본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이었다. 안성기씨는 숯가마 터를 벗어나는 게 인생 목표인 밤바에게 "밤바, 밤바는 꼭 꿈을 이룰 거야. 그렇게 힘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라며 밤바의 등을 다독였다. 밤바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인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네는 일뿐이었다.

안성기씨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보며 '어쩌면 희망이 이렇게나 없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반겨주고, 배를 곯는 상황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살아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희망의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인도를 방문한 가수 보아는 학교에 가기는커녕 하루 종일 힘들게 가위질을 하거나 석탄을 캐는 아이들을 보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결론은 뻔했다"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므로 나 이외에도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했다"고 말했다.

안성기씨는 이 약속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신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벤트성 기획이 아니라 3년째 계속되는 희망로드 대장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이 순간에도 지구 저편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곤 한다"며 "하지만 굶고 아프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어도 그때만큼은 지구 저 먼 곳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이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G

글 · 김혜민 기자

새로 나온 책

사랑은 왜 아픈가

에바 일루즈 지음
돌베개 ·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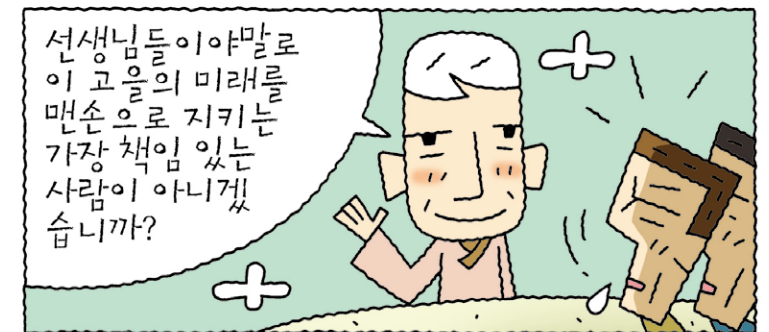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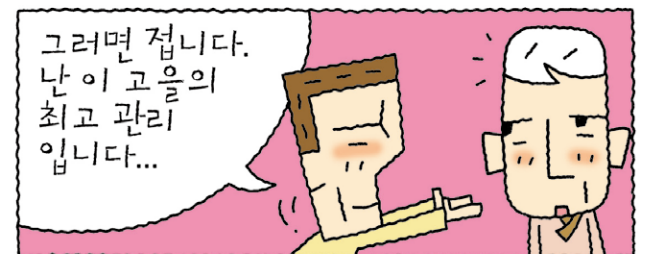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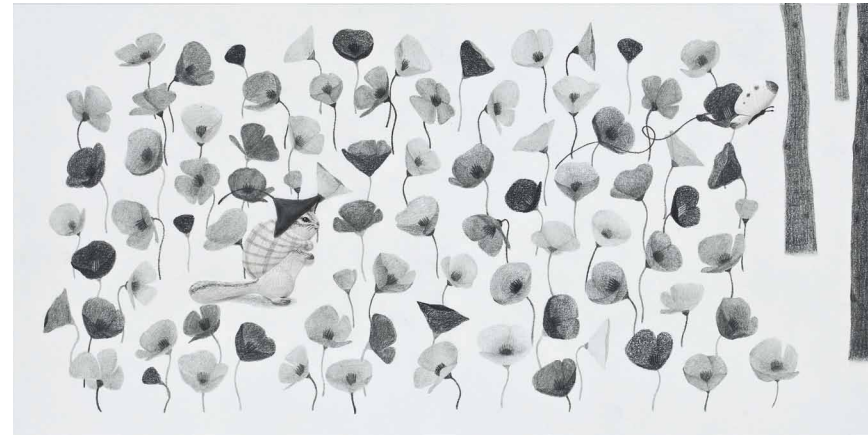
감정사회학의 대가가 인류의 오래된 주제인 '사랑'을 연구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부터 책과 잡지 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를 개인의 내면 감정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사랑은 "심리적인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연애감정과 경제적 계산이 얽히고설킨 영역"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즉, 사랑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사회와 제도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사랑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제도적인 원인에서 분석한 점이 흥미롭다.

왕과 나 : 왕을 만든 사람들 그들을 읽는 열한 가지 코드

이덕일 지음
역사의 아침 · 16,000원

역사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이덕일씨가 왕을 만든 권력의 2인자들을 재조명하는 역사서를 내놓았다. 저자는 비주류로서 주류 사회를 바꾼 김유신, 이성계를 조선의 개국 군주로 만든 정도전 등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을 꿰고 있는 킹메이커들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로써 한 시대 권력이 단지 군주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해 역사 속 미스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하고 정확한 사료를 토대로 흡인력 있는 문체로 쓰인 이번 책 역시 '역사서는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맨손으로 지키는 사람

글과 그림 · 최영순

참다운 스승의 모습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곧 멀리 바라보면 엄연하고, 가까이 나아가 보면 온화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하다. - 자하(중국 춘추시대 학자)

가족에게 받은 것들이 인생의 기쁨인 동시에 짐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 'The present'.

이미지와 스토리의 동등한 만남

북유럽문화원 〈안경미 작가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북유럽문화원이 안경미 작가의 전시회를 선보인다. 안경미 작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오랜 시간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걸어온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주말에 취미로만 그림을 그리던 안 작가는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안 작가는 "그때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이 현재 작업에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Storimage'로 'Story'와 'Image'를 합성한 단어이다. 작가는 거대한 서사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이미지의 집합이 감정의 서사를 만든다는 점에 착안해 '동등한 관계의 이미지 서사'를 표현하는 작업을 즐겨 해왔다. 예를 들어 영화적인 미장센(연극과 영화 등에서 연출가가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배열하는 작업)에 따른 서사를 회화에 녹이기도 하고, 인과적이거나 유기적이지 않은 묘사를 통해 스토리를 만드는 식이다.

이번 전시는 'The present' 'The nights' 'Egg wonderland' 'Gingerbread man'이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작가는 'The Present'에서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 인생의 기쁨인 동시에 짐이자 죄의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The nights'에서는 외로움, 감미로움, 슬픔 등 다양한 얼굴을 지닌 밤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리고 'Egg wonderland'에서는 하찮고 연약하지만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작은 우주인 달걀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Gingerbread man'에서는 인간 사회에 대한 풍자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북유럽문화원의 4대 테마인 'Story' 'Design' 'Human' 'Nature'와도 조화를 이룬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회를 통해 따뜻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기괴한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북유럽문화원은 북유럽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북유럽의 감성과 예술을 한국적 맥락 안에서 공유하고자 만든 소규모 공간이다. 유명한 강릉의 커피전문점 테라로사의 분점도 입점해 있다.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9월 29일까지 **장소** 경기 양평군 문호리 북유럽문화원 **문의** ☎ 02-591-7787

연극

〈하륵이야기〉

고양문화재단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워주기 위한 자연친화 가족극 '하륵이야기'를 선보인다. '하륵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버리는 페인트통, 생수병 등으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재활용의 개념을 신선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호주, 러시아 등에서 공연을 펼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동극이다.

기간 7월 18~21일
장소 경기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문의 ☎ 1577-7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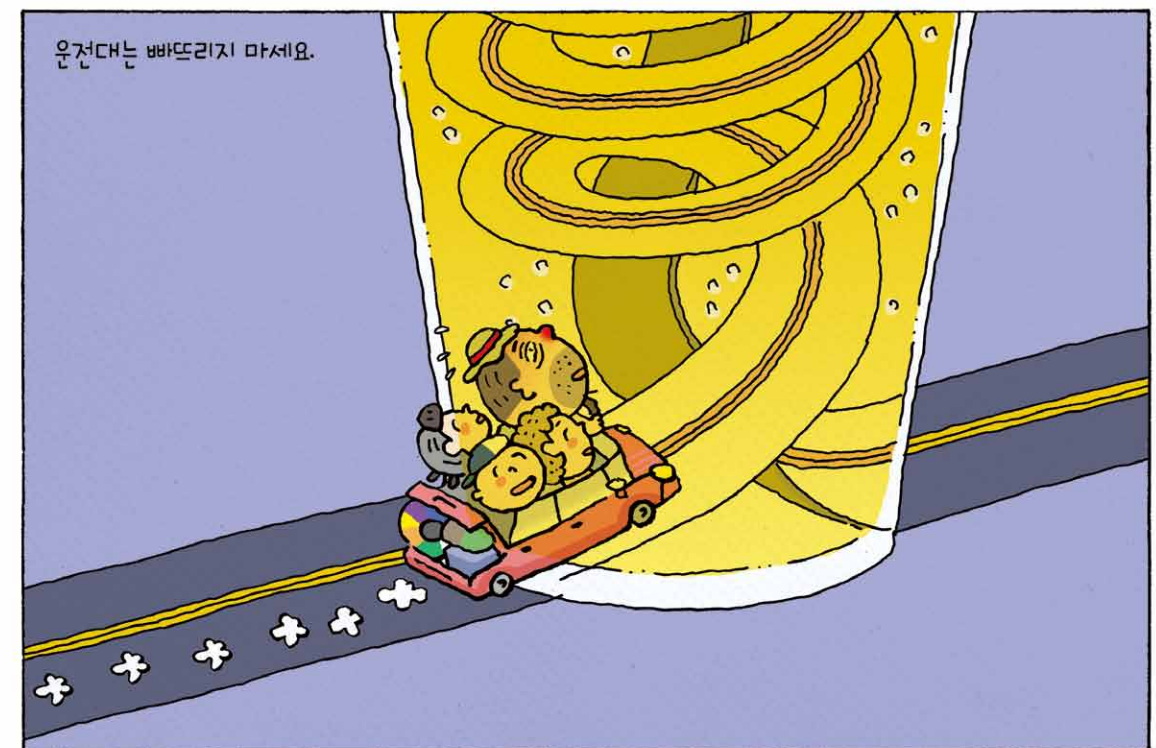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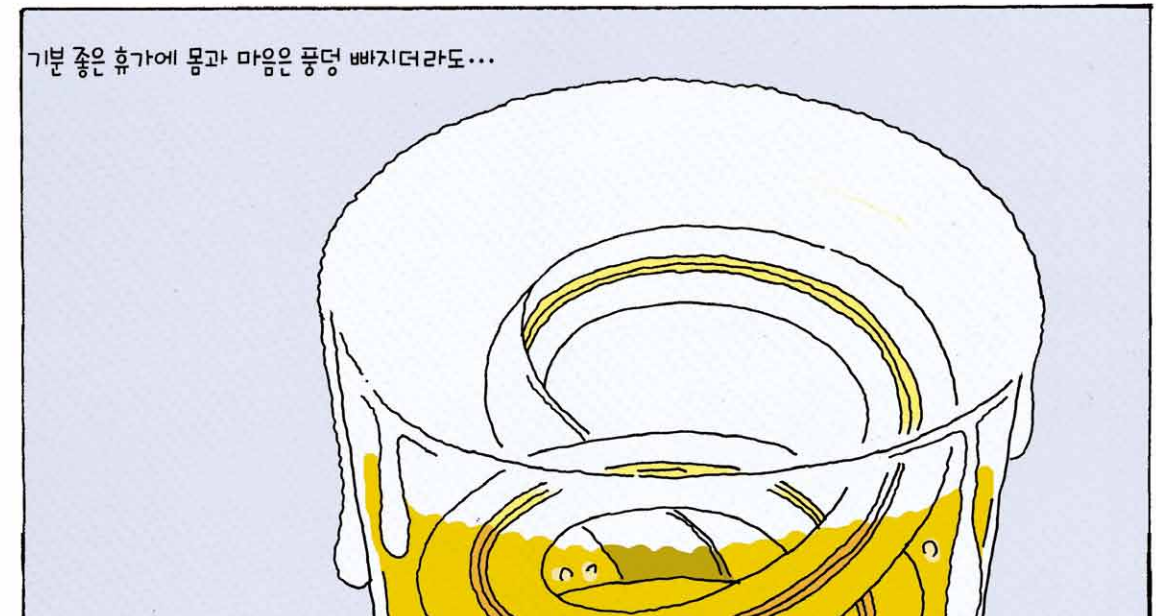
공연

〈시간 속으로-판소리, 악기를 만나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KB국민은행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적벽가 중 '적벽대전',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 판소리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극단 골목길의 박근형 연출가와 '2012년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상'을 수상한 앙상블 시나위는 작품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담담하게 끌어간다. 차세대 소리꾼 민은경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호소력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기간 7월 19~20일
장소 KB국민은행 청소년 하늘극장
문의 ☎ 02-2208-4114~6

음주운전 NO!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내 가족이 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애들 좀 놔둬요
창의성 좀 발휘하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 자녀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하고, 작은 일상의 문제도 다 해결해준다. 아이들은 그저 학교·학원을 오가며 숙제하고 사주는 옷 입고, 먹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 결과 자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도전해볼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반복적인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 자아정체감도 정립할 수 없다. 즉 학습된 무력감은 창의성을 좀먹어 우울한 어른으로 성장케 한다.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다 파괴적인 수단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통제력을 잃고 지속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 설명하기 힘든 조기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연구가 있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양로원에 들어온 65세 이상의 여성 55명 중 38명은 스스로, 17명은 갈 곳이 없어 온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 17명 중 4주 내에 8명, 10주 후에는 16명이 사망했지만, 38명 중에는 단 한 명만이 사망했다. 통제 상실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은 사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창의성 교육이나 조기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의 욕심과 창의성을 담보한 상혼 때문에, 청소년들이 심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오히려 말살시키는 끔찍한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연구소의 부모교육 강사는, 세 딸들을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한여름 귀갓길에 작은 태극선 부채를 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나온 아이들에게 부채를 하나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들은 아빠가 나누어준 부채를 받아들고 시무룩해졌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태극선에 딸기·바나나·사과 모양의 작은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셋 다 딸기 달린 부채를 원했다는 것이다.

아빠는 다시 그 밤에 바꿔 올 수 없다며 선물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행동을 훈계했다. 아이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부채를 놓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아빠도 속상해하면서 아이들 방으로 가서 "아빠는 너희들끼리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다. 아침이 되어 아이들 표정을 보니 모두 "하하호호" 하면서 뜻밖에도 아빠에게 부채 선물 감사하다고 하더란다. 어리둥절해서 물었더니, 셋 모두 딸기 달린

일러스트·최청운

태극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고 물으니, 하루씩 돌려 갖기로 해서 모두 딸기 부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려 말고 기다릴 것. 둘째, 의사소통의 비난, 훈계와 같은 걸림돌을 쓰지 말 것. 셋째, 공통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이 채워지도록 부모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아이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기다려줄 것 등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엄마에게 잊고 간 책을 가져다달라고 떼쓰는 아들에게, 대학교 다니다 사회경험 쌓으려고 휴학계 내고 인턴으로 입사한 아이에게, 부모·형제가 모두 의사·법조인인데 아이는 요리사·가수·화가가 되겠다는 아이에게, 부모는 허용하고 좋은 관계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두 살짜리가 고무신 신으려고 애쓰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더니 방구석에 기대서서 신고 마당으로 나갔단다. 이처럼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그들의 선택이 실패가 아니라 또 한 번의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용기 있게 멍석만 깔아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찾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G

김인자(서강대 명예교수·한국심리상담연구소장)